

## 구술면담 개요 및 일시, 장소

본 구술면담은 ‘현대사진연구회’의 활동에 관해 한 차례의 그룹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사전 면담 없이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간단하게 사업의 취지를 설명한 후, 각 구술자들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인터뷰 질문지를 미리 제공했다.

인터뷰는 2016년 7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 20분부터 2시간여 동안 한미타워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구술자로는 ‘현대사진연구회’ 초창기 회원이었던 사진작가 황규태 선생, 사진작가 주명덕 선생, 트렁크갤러리 관장 박영숙 선생, 『동아일보』 전 사진기자 조천용 선생으로 네 분이 예정이었으나, 인터뷰 며칠 전 조천용 선생의 연락으로 이영훈 선생이 합류하면서 총 다섯 분이 참석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최봉림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인터뷰는 진행 도중 10여 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재개되었는데 휴식 시간에 이어진 대화는 구술록에 신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구술자들은 ‘현대사진연구회’ 창립 배경, 회원의 구성, 전시회 및 품평회 풍경, 사진경향의 연구, 『사안』 편집과 발행, ‘현대사진연구회’의 해체 등 ‘현대사진연구회’의 대내외 활동과 지도위원들의 구성과 차후 행적, 사진인들의 교류와 갈등, 당대 사진이론의 담론과 논쟁 등 한국 사진계에 대한 회고를 들려주었다. ‘현대사진연구회’의 초반 활동에 대해서는 기억의 혼동에 의해 구술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구체적인 정황을 들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했다. 또한 각자의 기억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구술자들간의 음성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 채록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간혹 두세 명의 소그룹간의 대화가 동시에 이어진 경우는 대화를 따로 구분했다.

면담은 3대의 디지털 캠코더를 사용해 디지털 파일로 녹화했고 1대의 스틸 카메라로 대담 장면을 촬영했으며, 유선 마이크를 통해 대담을 녹음했다. 구술은 구술자들의 반복적인 어구를 제외하고는 내용 그대로 채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영훈 선생이 한국사진문화연구소에 기증해주신 1960년대 사진전 자료들과 현대사진연구회 관련 자료는 구술록 내용에 맞게 함께 실었다. 이영훈 선생의 기증자료는 그 목록을 정리해 『사진+문화 vol.11』에 수록할 예정이다.

일러두기

- 1 본 구술 녹취록은 한국사진문화연구소가 2016년 7월 6일 한미타워 2층에서 개최한 ‘한국사진사 구술 프로젝트:‘현대사진연구회’ 그룹 인터뷰 전문을 수록한 것이며 구술자들에게 자료집 발간을 허락받았다.
- 2 구술 인터뷰 내용 전문은 녹취 원문 중 독자의 명료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술자가 표현한 원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미전달과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반복된 표현 및 중복된 어구를 일부 삭제하고 비문은 어법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그대로 문자로 옮겼을 때 이해가 불가능한 발음과 어휘는 연구자가 수정했다.
- 3 구술 녹취록에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공개를 보류한 부분은 이를 밝힌 후 일부 삭제했다.
- 4 인명, 지명, 단체명, 전문용어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단어들, 모호한 내용,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은 각주로 처리했다.
- 5 구술 내용 중 ( )는 구술자의 행동, 표정, 각종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 채록불가, 그 외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첨가한 말에 사용했으며, [ ]는 대화 도중의 호응 혹은 동시 발언에, [ ]는 대화중에 생략된 말을 첨가하는 데 사용했다.
- 6 소그룹 간의 대화가 동시에 진행된 경우에는 따로 구분해 채록했다.
- 7 구술 내용 중 발음상의 이유로 불분명한 내용의 경우 ‘채록 불가’로 밝혔다.
- 8 그 외의 문장 부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었다.  
《 》: 전시명, 행사명, 〈 〉: 작품명, 「 」: 논문, 에세이명, 『 』: 책, 잡지, 신문명, - : 말늘임, … : 말줄임, “ ”: 대화 중 타인 혹은 자신의 말을 인용한 구절, ‘ ’: 대화 중 과거 자신의 생각을 인용한 구절,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
- 9 구술의 내용은 구술자의 주관적인 기억에 따라 기록된 것으로 역사적 사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는 다를 수 있다.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현대사진연구회'



일시 2016년 7월 6일(수)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15분

장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한미타워 2층 세미나실

구술 박영숙(朴英淑, 1941~)

이영훈(李英勳, 1941~)

조천용(曹千勇, 1941~)

주명덕(朱明德, 1940~)

황규태(黃圭泰, 1938~)

면담 최봉림(한국사진문화연구소 소장)

**박영숙** (朴英淑, b.1941)  
1963년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및 1986년 동대학 산업대학원 사진디자인학과를 졸업했다. 숙미회를 창립, 초대회장을 맡았다. 대학 졸업 후 『여성』 기자로 활동했다. 1966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36명의 포트레이트》(공간사랑갤러리, 1981), 《노스탈자》(파인힐갤러리, 1982) 등의 개인전을 열었다. 1986년 《우리 봇물을 트자》로 첫 페미니즘 작품을 시작, 1999년 여성 미술제 《팔쥐들의 행진》의 운영위원을 맡았다. 이후 《미친년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 2005년까지 7년간 진행했으며 2016년 8월 현재 천안 아라리오갤러리에서 《미친년 발화하다》전이 진행 중이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여성 그 다음과 힘: 여성적인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한국미술관, 1994), 《Women On The Borderlines》(도쿄, 2004), 《아주 공적인 아주 사적인》(국립현대미술관, 2016) 등이 있다. 현재 사진 전문 갤러리 트렁크갤러리의 대표이다.

**이영훈** (李英勳, b.1941)  
1941년 서울 출생으로 196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였다. 1961년 현대사진연구회에 입회하며 본격적으로 사진 활동을 시작했으며, 1963년도 《US카메라콘테스트》, 1964년도 《제2회 동아시아사진콘테스트》 등 국내외 사진 콘테스트에서 수차례 입상하기도 했다. 졸업 후에는 사회생활로 인해 1965년도 《제3회 현대사진연구회》전 참가 이후에는 사진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다.

**조천용** (曹千勇, b.1941)  
1965년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그해부터 『동아일보』 광고 사태가 있었던 1975년까지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로 활동했다. 1964년 《제2회 동아시아사진콘테스트》에서 〈모정〉으로 특선을 수상했고, 1967년에는 북태평양에서 침몰하는 삼수 320호의 마지막 순간을 촬영하여 사내에서 특상을 받았다. 1977년부터 1989년 대한항공 선전실 차장을 역임하면서 기내지인 『모닝캄』의 취재를 위해 약 30여 개국 100여 도시를 촬영하였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시사저널』 사진부장 및 부국장을 역임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세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이밖에도 한국 산악회 부회장 및 자문위원(현 종신회원)을 지냈다.

**주명덕** (朱明德, b.1940)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부터 『월간중앙』 기자로 활동했으며 1970년대 중반까지 숙미회 회원들을 지도했다. 1966년 혼혈 고아들을 찍은 《홀트씨 고아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개인전으로는《韓國의空間》(나고야, 1995), 《인천 차이나타운》(한미사진미술관, 2002), 《도회풍경》(갤러리 잔다리, 2004), 《주명덕 회고전》(아트선재미술관, 2006), 《My Motherland-비록 아무 것도 없을 지라도》(대림미술관, 2011), 《주명덕 사진전 蓮 PADMA》(한미사진미술관, 2016) 등이 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사진, 오늘의 위상》(아트선재갤러리, 1995), 《사진, 새로운 시각》(국립현대미술관, 1996), 《Asiatika Fotografer》(스톡홀름, 1996), 《Alienation and Assimilation-Contemporary Image and Installa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시카고, 1998), 《구본창, 민병현, 주명덕 사진 3인전》(금호미술관, 2002), 《ALL 4 YOU!: 제리 율스만, 메기 테일러, 강운구, 주명덕》(한미사진미술관, 2013) 외 다수가 있다.

**황규태** (黃圭泰, b.1938)  
1938년 충남 예산 출생으로 1963년 동국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경향신문』 사진기자로 활동했다. 1965년 도미해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으며, 1984년부터 1992년까지 미주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73년 프레젠테이션에서 첫 개인전 이후, 《황규태 Photography》(금호미술관, 1998), 《황규태 Contemporary Photography》(아트선재센터, 2001), 《황규태 1960년대를 만나다》(국립현대미술관, 2005), 《사진 이후의 사진》(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14), 《bLow UP aMeriKa》(한미사진미술관, 2016) 등 꾸준히 개인전을 가졌다. 이 외에도 《한국 현대사진의 흐름전》(예술의전당, 1994), 《사진-새로운 시각》(국립현대미술관, 1996), 《복제를 이야기하다》(성곡미술관, 2000) 등 수많은 단체전에 참여했다.

최: 선생님들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주명덕 선생님서부터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현대사진연구회에 입회하게 된 동기서부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주: (자신을 가리키며) 저요? {최: 네.} {잠시 생각하다가} 그[리]니까 내 경우는 현대사진연구회를 입회한 동-기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사진을 시작한 동기나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 저, (조천용 선생을 가리키며) 조천용 씨가 이제 학생 때부터 우리랑 같이, 저희들이랑 이제 등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다닌 그 등산 씨클이 있었어요. 모임이. 그 모임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얼마 전에 저희들이 뭐 창립, 창립 뭐 50주년인가 60주년이라고 그래서 한 번 모였었는데. 저희들이 한날에 등산할 때 그 모임에 젊은 사진작가가 산악 사진을 찍겠다고 저희 모임에 들어왔어요. 그 양반이 누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김열수라는 양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양반이 이 현대사진연구[회]…… 그 멤버들이 다 현대사진연구회에 들어와 있지만은, (손으로 원을 그리며)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그런 동아리 같은 역할을, 사진을 이제 도와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저희 등산 일정 때문에 김, 그, 김열수 씨를 만나러,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소공동인가 하여튼 명동에 그 다방을 김열수 씨를 만나러 갔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쭉- 같이 앉아 가지구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어떤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느끼기에는 굉장히 예뻐어. 그래서 김열수 씨 보고 “재, 나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했더니 “내가 어떻게 소개해 주냐, 그러지 말고 너, 우리 사진하는 씨클에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까”하고 또 내 친구 하나 꼬셔가지고 (웃으며)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저, (이영훈 선생을 가리키며) 영훈 씨는 생각날지 몰라, 저기 어디예요. 시청 앞에 안양옥이라고 설렁탕집에 {조: 음.} 처음에 내가 갔던 것 같애. {박: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옛날, 저기 미대사[미국대사관.]} 응? {박: 미문화원 뒤쪽.} 뒤쪽에. {이: 거기서 늘 월례회를 쭉 거기서 했었어요.} 월례회 할 때, 어. 어. 그때 그 월례회[에] 내[가] 갔더니, 김행오<sup>1)</sup> 선생하고, 이상, 아니, 이상규<sup>2)</sup> 선생님이 축사를 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하면, “이, 젊은 등산가가 이제 우리 사진하는 씨클에 들어왔는데, 산에 다니면서 사진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란다.”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그런 곳에 같이 이제,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게 62년 가을인지 63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한 6개월 만에 같이 들어갔던 친구들이, 그 친구 셋이서 신문회관 화랑에서 전람회를 했었거든?<sup>3)</sup> {박: (고개를 끄덕이며 주명덕 선생을 향해) 감관하고 김승원<sup>4)</sup> 씨 하고.} 어, 그래. 김승원하고.

조: (주명덕 선생을 바라보며) 그때는 신문회관이 없었지 않나?

주: 신문회관 있었어.

박: 박영숙  
이: 이영훈  
조: 조천용  
주: 주명덕  
황: 황규태  
최: 최봉림

1) 김행오(金行五, 1927-2014경).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고 해운공사에 재직했다. 이후 공보부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선전용 기록영화를 제작하다가 동양방송(TBC) 초대 편성부장과 편성국장을 지냈다. 호영회(好影會) 및 싸롱아루스 회원과 현대사진연구회 지도위원으로 활동했다. 1974년 도미해 미주 『중앙일보』 사장을 역임했다.

2) 이상규(李尙圭). 산업은행에서 근무했다. 싸롱아루스 회원으로 현대사진연구회의 지도위원이었다.

3) 《감관, 주명덕, 김승원 사진3인전》, 1963.9.20-26, 신문회관 화랑.

4) 주명덕 선생과 서울고등학교 동기로 김테라사 선생의 부군이다.

이: 있었어.

조: 있었나 그때? 1962년도에?

박: 있었어.

주: 그럼 [있었지]. 63년에 전람회 했어. {조: (고개를 끄덕이며) 어} 그 전람회가. {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때 이제 뭐, 효열이고 뭐 전부 다, 다들 뭐래냐면 우린, 우리는 사진 찍은 지 뭐 얼마, 어른들이 10년, 20년 됐는데 전람회도 못했는데, 이게 사진 찍은 지 뭐 1년도 안 된 것들이 전람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내 그래서 그, 지난번에 안동 갔다가 보니까, 그런, 그, 프로그램 같[은], 저, 뭐야. 제가 만들었던 리플릿 {박: 리플렛} 같은 게 있어가 지구. 지금 내가, (한 손을 들어 위를 가리키며) 지금 [한미사진미술관] 19층에 있어. 갔다 달라고 그러면, 볼 수가 있을 거야 지금.

최: 네. 박영숙 선생님.

박: 어-. 나는 내가 그, 싸롱아루스 첫 번 전[시], 첫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제.<sup>5)</sup> 그 전시를 구경하러 갔다가, {최: 네. 61년도입니다} 61년이요. 그[러니]간 61년도-에 내가 그, (잠시 생각하다가) 우리 공보관이라는 데를 잘-다녔어요. 음악 감상도 하고 문학, 문학 감상도 하러 가고 뭐. 가끔 가다 전시가, 내가 사진전 첫 번에 본 거는, 지금은 롯데백화점이 된 그때 국립도서관<sup>6)</sup>이라는 데서 거기서 한 전시를 본 게 첫 번이었고, 싸롱아루스가 두 번째 전시였으니까. 그-, 그 전시를 보러갔다가 거기에서, 사진에 반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공부하고 싶더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거기에[서 만난] 바로, 그, 미스 민이라는 사람이 『숙대신보』 기자였었어요. {최: 민경자<sup>7)</sup> 선생님입니다} 민경자 씨. 그런데 리플렛을 사려고 하니까 (손으로 사각형을 그리다가 ‘환’이라는 글자를 쓰며) 내가 그때 만환인지 천환인지 (웃으며) 몰라. 아무튼 환이라는 돈이야. 원이 아니고 그 돈을 내 놓으니까 거기는 그, 돈 다 못해도[보태도] 이 돈 못 주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나타나는 게 미스 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 운영위원회 회의를, 첫 회의를 할 때 미스 민이 와서 촬영을 해 주는데, (촬영하는 시늉을 하며) 얼굴도 찡글, 찡그리는데 몸도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전부 같이 웃었었는데.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것은 아주 천행이었다고 생각하는 사건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미스 민한테 “나 사진 공부하고 싶는데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그랬더니 (손짓을 하며) 그게 이제 그, 중국 대사관 보이는 명동길에 거기 2층에 있는 무슨 다방. 이름 잊어버렸어. 그 다방으로 오라 그래서 간 거가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갔더니 김열수, 이상규 선생님 뭐 이렇게 등등 계셨어요. 그리고 이형록<sup>8)</sup>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김열수 씨가 “여자가 뭐 가르쳐놓으면 시집가면 그만인데 뭣 하러 가르쳐 주냐” 이러는데, 김, 이상규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히 나를 맞아주었고, 그-, 그 주 토요일에

5) 《싸롱아루스 사진전》, 1961.9.28-10.4, 중앙공보관. 싸롱아루스 회원 신석한, 김열수, 이형록, 정범태, 이상규, 김행오의 작품 33점이 전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대구 미공보관 전시장과 대전문화원에서 순회전을 가졌다.

6)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서울 중구 소공동에 ‘국립도서관’으로 개관, 1974년 남산 어린이회관 자리로, 1988년 다시 현재의 반포로로 이전한다. 1979년에 이 국립도서관과 반도호텔 부지에 현재의 롯데백화점 본점인 롯데1번가와 롯데호텔이 들어섰다.

7) 민경자(閔慶子), 숙미회 출신으로 국제 사진콩테스트에서 여러회 입상했다. 현대 사진연구회 회원이었으며 여원사에서 사진 기자로 활동했다.

8) 이형록(李亨祿, 1917-2011), 일제 강점기 강릉사우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리얼리즘 사진을 주장하며 신선회(新線會)를 조직했다. 이후 1960년대에 싸롱아루스 및 현대사진연구회 등을 창립하고 지도했다.

이제 촬영 쫓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했는데, (황규태 선생을 바라보며) 그때 황규태 씨가 있었나? {황: 잘 기억이 안 나요} 어. 그런데 어떻게 황규태 씨는 그때부터 이제 같이 해서, 월례회를 하면은 황규태 씨가 필름 한 통 얻어가고, 그 다음에 나도 얻어가고 이럴,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계기로 썬아트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썬아트 멤버로 내가 생각,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어요.

최: 황규태 선생님하고 [박영숙] 선생님이요?

박: 저하고요. 다른 사람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최: 그럼 썬아트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사진연구회…….

박: 그럼요. (손짓을 하며) 현대사진연구회는 썬아트 멤버가 자연스럽게 현대사진, 싸롱아루스가 어떻게 정리되면서 썬아트의 멤버들이, 썬아트 멤버들이 아까 말했던 뭐, 무슨, 박철수, 이런, 이상도 이런 애들도 다였지만, 그 썬아트 멤버는 그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상-돈이나 이런 아[에]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황규태하고 나하고는 썬아트 멤버 맞아요.

최: 아니, 현대사진연구회가 먼저 있었는데 {박: 아니에요} 썬아트가 다[음에]

박: 노노노노. (손짓을 하며) 썬아트가 먼저 있고 이 멤버들이 자연히 이 현대사진연구회로 그냥 이렇게…….

최: 그럼 민경자 선생님도 썬아트 회원이었어요?

박: 썬, 민경자 선생님은 싸롱아루스 멤버였어요.

최: 싸롱아루스요?

박: (강한 어조로) 예. {최: (웃음) 허} 싸롱아루스의 {이: 아니, 아니야} 김열수 선생님? {이: 멤버는 아니야} {주: (박영숙 선생을 향해 손을 저으며) 싸롱아루스 멤버 아니야} 아닌가? {최: 아, 아, 멤버 아닙니다} {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싸롱아루스의 그, 하여튼 (돈 세는 시늉을 하며) 돈 계산해 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주: 어} 그 밑에, 김열수 선생님 밑에서 저기,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늘 같이 다니셨으니까.

박: 어어. {주: 그, 그, 글썽 그건 이제……} {최: 예} 그러면 그 정도, 더 이상 깊이 몰라.

최: 예예.

주: 그러니까 그 썬아트라는 거는 그냥 그것 하다가 저 {박: 금방 없어졌어요} 아니, 저, 서지, 전람회도 안 하고 그냥 {박: 전람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만. 뭐, 그건.

황: 근데 그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썬아트. {박: 그게 썬아트……} 김행오 씨가 지었나?

박: 아니, (왼손을 흔들며) 김행오 선생님은 그때 잘 못 봤어. 그거는 현대사진연구회가 본격

적으로 진행되면서 김행오 선생님을 봤지, 초기에는 썬아트였을 때는 김행오 선생님은 기억 안 나요.

최: 네. 조천용 선생님.

조: 예. 음. 저는 우선, 그, 저, 원래 등산을 했었는데 그때 주명덕 씨가 서울고등학교고 전 보성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년이니까 그때 195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 라산을 우리가 간 적이 있었다고. (주명덕 선생을 바라보며) 그치? {주: (고개를 끄덕임)} 어, 그래서 이제 같이 그때 각 팀별로 서울고등학교나 보성 그리고 이제 대학교 몇 팀, 고등학교 몇 팀 해서, 어-, 진해에서 일주일동안 수영, 그리고 요트 그런 걸 하고 이제 그 안에 국내 회원들하고 훌륭한 회장 땀데, 제주에 가서 등산 훈련을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흠. 알기는 그 전부터 알았었는데, 주명덕 씨나 제 기억으로는 이, 워킹, 도보보다도, 물론 도보도 하지만 클라이밍, 암벽등반 위주였습니다. 그렇게들 시작해서 세 사람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에, 어-, 교내 전시회를 한[대략] 두 번 했어요. {최: 사진으로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 어-, 사진반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처음으로 암실작업을 하고 뭐 그런 적 있었습니다. 그래 시작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와서도 어…… 교내 전시회를 한두 번 했었는데 그때 이영훈 씨하고 저하고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영훈 씨가 그걸 보고 “야, 거 현대사진연구회에 들어와라.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영훈 선생을 가리키며) 들어오게 된 게 우리 이영훈 씨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박: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랬구나.} 그때 아마 제 기억에 62년 말 아니면 63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천용 선생을 바라보며) 62년도쯤 되었을 걸?} 글썽, 나도 62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현대사진연구회에 입회하게 됐습니다.

최: 예. 이영훈 선생님.

황: (박영숙 선생을 바라보며) 썬아트는 몇 년도였어요? 시작이. {박: 그게, 그게…….} 60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박: (황규태 선생을 향해) 60, 60, 그 숙미회<sup>9)</sup> 생긴 거하고 썬아트하고 거의 동시거든요. {황: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게 61년이 맞을 겁니다.

황: 61년이요?

박: 예. 숙미회 전시가 62년이죠?<sup>10)</sup>

최: 예.

박: 그러니까 내가 3학년 때였고, (손가락으로 공간을 짚어가며) 61년. 그리고 62년은 그걸 2월 달 전시를 하고 3월, 아니야. 몇 월 달 전시하고 2월 달인가 3월 달에 내가 졸업했으니까…….

9) 1961년 창립된 숙명여자대학교의 사진 동아리. 가장 초기에 창립된 한국 대학 사진 동아리 중의 하나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한미사진미술관 송영숙 관장, 트렁크 갤러리 박영숙 대표, 사진작가 김옥선 등이 숙미회 출신이다.

10) 《제1회 숙미회 사진전》, 1962.12. 3-9, 중앙공보관.

주: (손에 든 펜을 흔들며 박영숙 선생에게) 내가 그 숙미회 전람회 보러 갔었거든.

박: 첫 번째 전시 때?

주: 그래, 그래. 그- 어디야? 저…….

박: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공보관. {주: 어? 공보관에서 했어.

주: 공보관에서 했었는가? {박: 어. 어.} 그 첫 번째? {박: 그거는…….} 세종호텔에서 했던 거는?<sup>11)</sup>

박: 그거는 한참 후. 한 2, 2년이나 후에. {주: 응? 1년, 그거, 세종, {주: 세종…….} 첫 번 한 건 공보관으로 돼 있던데?

주: 그래요?

박: 응, 내가 그, 우리 숙미회(淑美會), {주: 모르겠어.} {최: 네, 그때 그거 자료집<sup>12)</sup>에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 그것 보면 중앙공보관으로 되어 있어요.

주: 아, 그건 모르겠어. 내가 기억나는 게 세종호텔 가서 했었을 때…….

박: 세종호텔이 아마 두 번째인가?

최: 살롱 달리앙스(Salon d'Alliance)를 얘기하시는 거죠? {주: 아니, 아니야.} 세종호텔이 아니라.

박: (손으로 주명덕 선생을 가리키며) 그거는 [주명덕] 선생님 전시고. 개인전이고.

최: 그게, 살롱 달리앙스. {박: 그게 선생님 개인[전이고].} (한 자 씩 강조하며) 살롱 달리앙스. {주: 달리앙스.} {박: 알리앙스.} 그러니까 수도여사대, {주: 달리앙스는……, 응?} 수도여사대에 있었던…….

주: 아니야. 수도여사대는, {박: (주명덕과 동시에 손사래를 치며) 그건 같지 않아요. 공간이. 수도, (양손으로 서로 다른 위치를 가리키며) 여기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있으면 수도 여사대는 이쪽 건너편.} 수도, 그건 세종호텔, 저, 수도[사대], 수도화랑이라고<sup>13)</sup> 왜 세종호텔, 지금 말하자면 거기에 수도화[랑], 옛날, 여대지. 사뎃가. 그게 화랑이 있었어요.

최: 그게 살롱 달리앙스 아니에요?

박: (양손으로 서로 다른 위치를 가리키며) 아, 달라. 다른…….

주: 살롱 달리앙스는,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는 그 앞이야.

박: (팔을 뻗어 한 곳을 가리키며) 여기가 세종회관이면…….

최: 아, 살롱 달리앙스는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하는 {박: 하는 거예요.} 전시장이었고요?

박: 예예.

주: (고개를 저으며) 전시장이 아니라 카페야, 카페. (모두 동시에) {박: 카페야, 카페.} {최: 카페가…….} {박: 예. 조그만한 카페.} {조: 카페 맞아. 카페다. 맞아. 알리앙스. 그래, 맞아. 기억이 나. 음음음.}

11) 《제2회 숙미회 사진전》, 1963.12. 2-8, 수도화랑.

12)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편, 『한국사진문화연구소 구술프로젝트: 숙명여자대학교 사진부 숙미회 50년을 지나고』, 한국사진문화연구소, 2013.

13) 총무로2가 구 수도여자사범대학 교사(현 세종호텔 자리) 내에 있던 화랑으로 현 세종대학박물관의 효시다.

박: (양손으로 테이블의 서로 다른 부분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이, 알리앙스는 여기 있었다면, 그, 수도[화랑]는 여기예요. {최: 저} 그러면, (주명덕 선생을 향해) 한 2회 정도 되나봐.  
 최: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영훈 선생님. 좀 입회하시게 된 동기 [말씀해 주십시오].  
 이: 허허, 참 오래 전 애긴데. 어험. 사진을 하게 된 동기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흠. 어떻게 친척 형님이 아주 그, (손바닥으로 크기를 묘사하며) 아주 장난감 같은 카메라를 가져 왔더라고요. (카메라의 부위를 손으로 묘사하며) 그래 그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리계는 위에 별도의 레인지[렌즈] 파인더에다 끼워서 거리를 맞추는 거리계가 있고, {조: 응, 응} 조리개가 있고, 셔터통이 있고, 가만히 보니까 ‘아, 이렇게 사진을 찍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며) 필름을 하나 사다가 그거 가지고 기념촬영을 했어요. (손뺌을 치며) 그런데 이게 나오더라고. (일동 웃음) {조: 그게 나와. 하하하} 첫 번째. {박: 그래도 잘 알아서 했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사진에 더, 야, 사진이 {박: 신기하다} 이거 재미있거든요.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죠. 그걸 찍고, 동, 저, (천정을 응시하며) 거기 산성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야경도 찍고, 야경, (양손짓을 하며) 그 남산을 쪽 내려다 봐가지고, 지금 뭐냐면 청와대 뒷산 거기 성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보면은, 아주 한 앵글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조: 응} 해가 넘어가고 야등이 약간씩 들어오고, 찍는데 보니까 어, 그것도 나오고, 거, 참, 뭐, 상당히 사진을 하나 뽑아서 보게 되면 이제 흥분을 하고, 주로 이제 찍으면, 찍는 족족 찍어서 나눠주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된 거죠. 대학교 하고. 대학교 1학년 땀가? 61년도인가 봐요. 그, 공보, 서울공보, 저, 문화공보관. {박: 응} 거기서 싸롱아루스 사진 전시회가, {박: 손을 뻗으며} 그거, 나 본 거[지]. 어, 그게 있더라고. ‘아, 여기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지요. 그때 거기 걸려 있는 사진을 보니까 (손뺌을 치며) ‘아, 이, 사진 예술은 이런 거로구나. 얼마든지 사진, 카메라 가지고 찍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당장, 거기서 이제 누군지도 모르죠. “여기 어떻게 가입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그때 이형록…….

박: (손으로 이영훈 선생을 가리키며) 그러면 이영훈 씨도, 저기도, 초기에 썸아트 멤버다.

이: 썸아트, 그땐 썸아트라는 건…….

박: 그걸, 그때 만들어졌었고, 황규태 씨는 썸아트 생각나요? {황: (고개를 끄덕이며) 나.}

이: 썸아트라고 안 하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때는 이제, 지금 기억나는 건 이형록 선생님이서. 그리고 이제 지금 고인이 됐지만 김효열 씨가 있었고, 어……, 그러면서 꺾꺾 꺾 웃으면서, 뭐, 몇 가지 이제 물어보더니 “알았다. 사진 공부하는, 응? 할 수 있는 클럽이 있으니까 어느 날 어떻게 이제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임장소, 시간을 가르쳐줬더니 그날 거기서 현대사진연구회라는 거를 결성을, 결성을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최: 그럼 61년에 현대사진연구회가 결성이 됐나요?

이: 예, 61년도, 1961년도. 그래가지고 그 싸롱아루스 멤버 중에는 젊은 사람이 (손가락 두 개를 펴며) 두 사람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김효열 씨. 나중에 이제 『세계일보』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김효열 씨가 있었고 한광희 씨라고 또 있었어요. (동시에) {조: 어어어} {황: 아, 맞다, 한광희. 있었다.} {박: 한광희가 있네. 이제 생각난다.} 예, 그게 이 두 분이 이제 제 나이 또래니까. 이제 두 친구가 나를 반갑게 맞으면서 “싸롱아루스는 이거, 선생…… 어, {박: 그룹이고} 선생님들 그룹이고,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분들 이니까 우리가 애초에 처음서부터 이제 사진 공부하고 그럴 만한 저거로선 현대사진연구회를 지금 다시 결성을 하니까 여기 우리 참여해서 열심히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최: 그럼 한광희 선생님하고 김효열 선생님은 싸롱아루스의 회원이 아니었던 거죠?

이: 그때, 그, 그때 멤버였는데. {최: 네} 어……, 너무 젊고 {최: 네} 아직 사진 경력이 짧으니까 {박: 그……}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현대사진연구회에서 같이, 스타트를 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현대사진연구회 멤버가 됐어요.

박: 그, 혹시 기억을, (한손으로 이영훈 선생과 본인을 번갈아 가리키며) 우리가 [기억을] 나눈다면, 그, 김효열하고, (허공에 원을 그리며) 그러니까 싸롱아루스 전(展) 하고는 다른 무슨 전시가 있었어. (이영훈 선생을 바라보며) 그게 현대사진연구회 첫 번 전시였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무슨 전시인지 모르겠는데 (웃으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김효열이의 <파창>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sup>14)</sup> 그거 기억 안 나요? {이: 음, 그거……} 근데 그게, 싸롱아루스하고는 다른 전시였던 것 같은데.

이: 아니에요, 같이 있었어요.

박: (고개를 숙여 메모하면서) 아, 그러면은 그 싸롱아루스 멤버에 김효열이 들어 있었구나.

이: 그리고 염소가, {박: 응} 이렇게 {박: 그것도 있었어} 피리……, 누가, 피리 부는 소년인가? {박: 어} 그 옆에서 염소가, 하얀 염소가 {황: 그건 정범태<sup>15)</sup> 아닌가?} {최: 그건 정범태 선생님 작품 같은……} (양 손바닥을 모으며) 노래를 감상하는 듯한…….

박: 그게 누구라고?

최: 정범태 선생님 작품 아닌가요? 그거?

박: 누구?

황: (고개를 끄덕이며) 어, 정범태 선생이야. 정범태. {최: 예, 예.}

이: 아, 그게 정범태 사진이구나. {최: 당연히 싸롱아루스, 예, 싸롱아루스 회원이셨으니까.} 아, 염소를, 또 한광희가 많이, {황: 정범태 선생이야} 많이 찍었어. 또 염소 사진을, 한광희가.

14) 김효열의 <파창>은 1962년 《제1회 현대사진연구회전》에 출품되었다. 작품은 자료집 199쪽 참고.

15) 정범태(鄭範泰, 1928-). 『조선일보』 사진부 기자를 시작으로 『한국일보』, 『일간 스포츠』, 『세계일보』 등의 사진부장을 역임했다. 신선회, 싸롱아루스 및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다수의 단체전과 국제 공모전에 출품했다.

박: 근데 <과창>은 생각이 나. <과창>.

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제 했죠. 그러고선 {박: 그때 같이.} 이제 상당히 흥분되게 한 게 “첫 번째 월례회에 이제 사진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나왔더니 그날 이제, 사진이 켈 점수가 좋다고 우수작품으로 선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어떤 야경 사진이었어요. {황: (이영훈 선생을 가리키며) 맞아, 사진 좋았어.} {손짓을 하며} 응, 응. 야경 뒤에 서치라이트가 비추고, 이게, 조기를 끌고 가는 지게꾼이 있던 그런 야경 사진이었는데, 그 뒤에 서치라이트에 이제 할레이션 이렇게 짝악- 이렇게 보이고 그런 건 예상치 못한 그게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를, 그…… 참 ‘사진을, 꼭 멋있는 사진을 찍어보겠다.’ 그런 의욕을 돋구어주는 첫 스타트가 그렇게 되 가지고 참 뭐, 열심히들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찍었죠.

조: (이영훈 선생을 바라보며) 그게 <귀가> 아니야? 혹시 제목이? {이: 어, 어. 침에 거. <귀가>} 그래, 나 기억이 나. 근데, {이: <귀가>} 그, 어, 저녁때 퇴근하는데 밤에 실루엣으로 찍었는데 {손으로 드는 시늉을 하며} 조기 줄에 매달아 {이: 어, 어.} 들고 가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 맞아. 기억이 나. <귀가>야, 그게.

황: 고양이 사진도 생각이 나는데? 담, 담 위에 까만 고양이. {이: 어, 그건 나중에 찍은 거고} 어어. 그 생각이.

최: 그러니까 현대사진연구회는 61년에 창립된 걸로 보면 되겠군요?

이: (고개를 끄덕이며) 61년도.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박: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말했던 썬아트는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그게 금방 현대사진연구회가 {최: 예, 흡수가 된 거 같은, 예.} 되면서 흡수된 거예요.

최: 저, 황규태 선생님. 입회하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황: 난, 고등학교 때 사진반을 하다가 서울 와서도 학교를 가서, 동국대학교, 사보 사보 있죠? 신문. 그 사진도 찍고 그러다가, 찍어주고, 그러다가 (손사래를 치며) 그런 사진 클럽이 있는 줄도 몰르고 ‘아, 사진 클럽 한 번 해야 되겠다.’ (웃으며) 하면서 학교를 찾아다녔어. 학교, 그, 사진반들. {박: 어~} 그래서 연대에 가서 학생들 만나고, 뭐, 외대도 내 갔었던 생각이 나. {최: 그때 외대나} 거기도 가서 만나고.

최: 연대에도 연영회 그런 게 있었나요? {황: 거, 뭐 있었어. 그런 거. 그래서…….} {이: 없었어.} {박: 연영회라는 이름은 없어요.} 사진반이 있었어요? 숙미회가 제일 먼저 생겼을 텐데.

박: (손을 가로 저으며) 아니에요. 연영회라는 이름은 한참 후에 생겼어요.

최: 그럴 것 같은데요. 숙미회가 대학사진 서클 중에서는 제일 먼저 창립이 됐거든요.<sup>16)</sup>

{박: (고개를 끄덕이며) 네네네네.} 그러니까…….

조: (박영숙 선생을 바라보며) 그게 몇 년도죠?

16) 1961년 숙명여자대학교의 사진 동아리 숙미회가 창설된 이후 여러 대학에서도 사진부가 생겨났다. 서강대학교의 서광회(西光會)는 1963년, 한양대학교 하이포(H.Y.P.O.)가 1965년, 고려대학교 호영회(虎影會)와 연세대학교 연영회(延影會)는 1966년이다. 육명심의 『한국현대미술사(사진)』(동화출판공사, 1971)에 따르면, 가장 최초의 대학교 사진동아리는 1956년 창설된 부산대학교 사진예술연구회이다.



이영훈, <담>, 1963년 《US카메라콘테스트》 4위 입상작.

박: 그게 61년이예요.

조: 숙미회가?

박: 네.

황: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박: 예. 61년에 다 몰려 있어요} 몇 명 모여가지고, {조: 음.} 모이는 중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현대사진연구회에 컨택(contact)이 됐는지 그걸 몰라요.

박: 그, 자기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황: 어, 왜 그랬는지, 난 생각이 안 나 그거는.

최: 박상우 씨가 쓴 글, 저번예요. 발표한 거, 거기에 보면 “1958년 사진가 이해선<sup>17)</sup> 선생을 찾아가서 사진 지도를 부탁해갔고 근데 거절당했다”라고…….<sup>18)</sup>

황: 아, 그건 이제, 이 현대사진연구회하고 다르게.

최: 예, 58년이니깐요.

황: 58년인지, {최: 예.} 59년인지 그건 확실치는 않은데 이해선 씨를 누가 소개해 줬는지 찾아갔어요. {최: 대한예술사진[가협회], 예. 그쪽에…….} 예, 예. 예. 그래서 이해선 씨 집으로까지, 집까지 갔지. 갔더니 뭘 여러 가지 물어. 뭐, 출신도 묻고, 어디서 왔냐 묻고, 내 지금 감각으로 이 양반이 나 촌놈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 (웃음)} 그래가지고, 거절하더라고. 다 묻고서. 그래 이제 거절을 해서 그냥 차여가지고 나왔는지? 그리고 학생들하고 이제 모이는 중에 어떻게 해서 현대하고 내가 컨택이 됐는지 그걸 기억이 안 나요. 뭘 어떻게 해서 컨택이 됐는지.

최: 그럼 썬아트, 그쪽 회원이셨으니까 그쪽에서 아마 {박: 그래.} 현대사진연구회랑 링크(link)가 됐을…….

박: 그게, 그 썬아트 멤버가 {황: 그, 몇 번.} 우리 둘 말고 좀, 몇, 한 네 다[섯], 세 네 명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황: 몇 사람을, 모였던 친구들이 같이 갔다고, {박: 어, 어, 어.} 어. 그 사람들도 내가 끌어들이었

17) 이해선(李海善, 1905-1983). 고회동에게 사사하고 동경미술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했으나 사진으로 전향했다. 일제강점기부터 경성아마추어카메라구락부(1936), 백양사우회(1939) 결성을 통해 한국 사진계의 형성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사진예술연구회(1947년 대한사진예술연구회로 개칭)를 창립하고 후진들을 지도·육성해 왔다. 《국전》, 《신인예술상》, 《동아사진콘테스트》등의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18) 박상우, 『황규태, 뉴 포트를 향하여: 1960-70년대 초기 사진을 중심으로』,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학술컨퍼런스 《한국현대사진과 '현대사진연구회'》 발표. 2016. 5. 28. 본 자료집 43-59쪽에 수록.

다고. 그런데 그게…….

박: 그런데 이제 싸롱아루스가 고민을 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황: 응, 응.} 그래서 그냥 그러면 썬아트라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 아까 말한 우리, 김효열 하고 이런 친구들이, 현대, 싸롱아루스에 하여튼 김효열은 그때 거기 있었어. {황: 어, 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현대사진연구회로] 내려오게 되는 동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몽각<sup>19)</sup> 선생님도 현대사진연구회에 우리보다 좀 뒤에 들어오셨고, (양손을 모아 흔들며) 그런데 그때 다 이게, 같은 해에 이렇, 그렇게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굉장히 몇 년 후 이런 게 아니고.

황: 그러다 들어갔어요.

박: (웃으며) 그러다가. {황: (웃음)} {최: 음. 현대……} 근데 내가 기억나는 거는 황규태랑 같이 나는, {황: (박영숙 선생을 가리키며) 촬영을 많이 같이 다녔지.} 둘이 굉장히 열심히 다녔거든 침에. 그, 그래서, (양 손가락으로 머리를 짚으며) 그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황규태라는 [게] 머리에 있어요. 첫 번[째] 만난, '썬아트 멤버로 만나고 우리가 같이 현대사진연구회 됐다.' 이게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어요.

최: 그러면 창립동기 같은 거는 어떤 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싸롱아루스에 있는 분들 이…….

박: 그게,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싸롱아루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싸롱아루스하고 다른 제너레이션(generation)들을 뭉친 거죠.

최: 예.

이: 그렇지요. (손짓을 하며) 영거(younger) 제너레이션들이 많이 발탁이 되고 오니까, 싸롱아루스에서 '그러면 현대사진연구회를 만들자.'

박: 어, '만들자.' 그런데 여기 있는 멤버들이 다른 거였죠. 다른 사람들이 사진 배우려고 하는 거하고 여기 딱 대학생들이 뭉쳐지니까 느낌이 달라지고, 이게 그렇게 조직돼 있으니까 김행오 선생님도 그때 이제 등장한 것 같아요.

최: 어,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대사진연구회가 한국 사진사에서 차지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치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어쨌든 한국 사진의 지성화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그러냐면은, 다, {박: 그거가……} 회원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대학생, 대학생 재학 중일 때고, 지금처럼 어쨌든 대학생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분들을 보면은 대개 은행원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고 또 교사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박: 학교 교사가 많았죠. 진명여고 교사도 있었고.} <sup>20)</sup>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다 대학 출신들의 이제 모임이었다는 거죠. 대개, 대체적으로 좀 그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직업들이라든지 직함, 그거에 대해서, 연령,

19) 전몽각(全夢角, 1931-2006).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립건설연구소, 경부고속도로 건설사무소,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했으며,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대사진연구회와 싸롱아루스에서 활동했다. 1회 개인전 《윤미네 집》(신세계백화점 회랑, 1971)과 2회 개인전(출판문화회관, 1978)을 개최했으며, 1989년 가족을 찍은 사진을 모아 『윤미네 집』을 출간했다.

20) 싸롱아루스 창설 멤버로 신석환을 말한다.



《제1회 현대사진연구회전》 전시장에서. 아래 좌측부터 ( ), 이상규, 이형록, 김행오, 김열수, 윗줄 좌측부터 ( ), 민경자, ( ), 전몽각, ( ), 박영숙, 이영훈, 황규태.

연령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웃으며) 어느 선생님이 좀 [말씀 해주실까요?]

박: (양 어깨를 살짝 들썩이며) 직함은 여기 없었어요.

최: 아니요. 그때 이제…….

박: 아, 그분들. 그분들의 직함을 우리가 알까? {조: 누구, 누구, 누구?} {황: 직업, 직업.} {최: 직업들이요.} 그러니까 직업. {이: 직업인, 그 당시에.} {황: 대개, 대개 뭐} 이상규 선생님도 은행에 계셨어요.

황: (손으로 숫자를 세며) 은행이고.

이: (박영숙 선생을 바라보며) 그건 이제, 그건 싸롱아루스 멤버로서 {박: 멤버였는데.} 은행원이시고.

박: 그런 분들[이] 있고, 현대사진연구회 멤버들은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황: 거의 학생이었어요. 거의. (동시에) {주: 아, 아니 그러니까.} {이: 아, 몇 사람 있었지. 직업.}

최: 아, 거의 다 학생이었나요? 그래서 나중에 은행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그런 건가요?

황: 그렇지요. 나중에 그런 거죠. 그때 전부 학생들이었으니까.

최: 예, 그러니까 신문 기자…….

박: (사회자를 향해 손사래를 치며) 아니, 교사 된, 현대사진연구회에서 교사 된 사람은 없고, 교사 된 사람은 싸롱아루스에 {황: 아, 그 교사 된 사람들은 먼저 싸롱아루스 멤버.} 있던 사람 중에 [있지]. 진명여고 선생 한 사람 있어요. 현대사진연구회 멤버 중에는 {황: (박영숙 선생을 바라보며) 거의 학생.} 교수 된, 선생님 된 사람.

최: 이장호란 분은 무학여고 교사셨구요? {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예, 예. 사진반.} 저희들이 찾아본 바로는…….

박: 우리 멤버예요?

이: 예.

최: 이호성이라는 분은 초등학교 교사셨고요.<sup>21)</sup>

황: (사회자를 바라보며) 이호성이라고 있었어요? {최: 예.} {박: 모르는데.} 김호성인가 이호성인가?

최: 이호성입니다.

박: 멤버가, 우리 멤버 아닌 것 같은데. 모르는…….

최: 그리고 백환규 선생님은 쏘피아서점을 하셨고요.

황: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 네, 맞아요.

박: 그 사람은 교수예요.

이: (박영숙 선생을 향해) 당시 강의에 나가셨다고.

황: 독, 독일어. 독일어.

박: 독, 독일어 교수.

최: 예. 박봉근이라는 분은 광신약방을 하셨고. 백남식…….

박: 그 사람들은 멤버가 아니지 않아요?

황: 백남전이. 백남식 씨

이: 백남식.

최: 백남식 씨는 가톨릭 구제회에 계셨고요.

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

박: 지금도 계세요. 그 사람은.

최: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은…….

이: 그, 상업은행에 계시던 정, {황, 조: 정철용.} 정철용 씨는 그때 이제 은행원이셨고.

최: 예, 그러니까 좀 연령차이도 좀 있지 않았나요? {이: (끄덕이며) 예, 있었지요.} {황: 많았죠. 많았죠. 많았는데…} 대학생도 있었고. 예. 근데, 사회에 나가셨던 분들이 대개 다 교사나 제가 읽어봤던 느낌으로는 ‘은행원들이 많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았나요?

이: 음, 많지는……. {조: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박: 근데 현대사진연구회 멤버들보다는 {이: 두 분이지, 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이상규 씨가 상업은행에 계셨고, {최: 예.} 정철용 씨가 상업은행에 계셨고 {최: 예.} 그 두 분 외에는…….

박: (이영훈 선생을 향해) 상업은행에 누구?

이: (박영숙 선생을 향해) 이상규 씨요. {박: 이상……} (한 자 씩) 이상규.

21) 1965년 『사안』 제6호에 따르면, 당시 동두천국민학교 교사로 근무중이었다. 현대사진연구회, 『사안』, 제6호, 1965년 2월, 61쪽.

최: 그럼, 권명광<sup>22)</sup> 선생님도 그때는 대학생이셨나요?

황: 누구?

주: 아니, {최: 권명광.} 아니야. 권명광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권명광은 한일은행에 있었어요. {조: (고개를 끄덕이며) 아, 한일은행 맞다.}

최: 예, 한일은행에 계셨던데.

주: 어. 한일은행은 말하자면 그, 디자인실에서 {최: 예.} 이제 그런 거고, 그건,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 친구는. 그리고…….

최: 그럼 이창진, 뭐, 이창환 선생님, 김효열 선생님. 다 이런 분들은 다 그때는 대학생이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박: 아까 말씀하셨던 {이: 그렇지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뭐.} 그분들은요. 제가 기억하기에 주로 만나는 분이 아닌데 이상진[이창환], 이창진은 우리들하고 같이 늘 있었던 멤버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들은 (주명덕 선생을 바라보며) 잘 기억이 없어.

주: 그 뭐.

황: 이창환 씨가 {박: 어.} {이: 이창환 씨가 뭐……. 거긴 뭐…….} 우리가 현대[사진연구회 활동] 할 때 {박: 집 내놔잖아.} (한 손을 몸쪽으로 모으며) 들어왔고. {박: 응.} {조: 응.} 그 다음에 창진이는 (동시에) {주: 창진이는 그 후에 나중에 들어왔어.} {이: 그 후에. 2년 후에 들어왔었어.} {박: 얘기였지.} 거의, 거의 안 했어, 안 들어왔어. {박: 몇 년 후에.}

이: 2층에 집. 저, 형 따라서 들어왔고.

황: 그렇지. 그렇지.

이: 창환 씨는 그때 이제 무직이라고 보기에는 뭣하고 그 집에서 그 빌딩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명동에.<sup>23)</sup>

조: 충무로.

이: 충무로.

주: (왼쪽 손에 펜을 쥐고 허공에 쓰는 듯이) 그, 저것도 보니까, 내 경우 보니까, 『사안』, 거 하여튼 내가 뭐, 몇 년에 현대사진연구회에 입회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처음 그 안양옥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섞인 거하고 현대사진연구회 회원이 된 거 하고는 시기가 꽤 차이가 있더라고.<sup>24)</sup>

박: 차이가 한 1, 2, 1년 정도는 있을 것 같애.

주: 어어. 그때까지는 그냥 난 섞여-있어 가지구 그냥 그 모임에 있었는데. 그, 좀 다르더라고.

박: (왼쪽 손으로 주명덕 선생을 가리키며)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김선옥이 때문에. 그 런데 나중에 이제 현대사진연구회 멤버가 그냥 됐어요. 그때쯤은 이제 자기 저기[의지]가 확고했어요. 처음에는…….

22) 권명광(權明光, 1942-). 시각미술디자인으로 홍익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상명대학교 예술대학 석좌교수이다.

23) 이창환은 경향신문사 사진부에서 근무했다.

24) 1964년 12월 『사안』 제5호에는 주명덕의 입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현대사진연구회에서는 11월 이창호(서울시 무학교 네[어고] 선생) 씨와 주명덕 군이 입회하였다.”, 『사안』, 제5호, 1964년 12월, 45쪽.

최: 그럼 현대사진연구회는 그냥 대학생 서클로서 출발했다. {박: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박: 네네.} 근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뭐 은행원도 되시고, 신문기자도 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직업군이, 직업군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박: 그렇게 됐을 때는 현대사진연구회가 거의 사그라지는 때였어요.

최: 예, 예. 알겠습니다. 1961년에 5.16 일어나고 국가최고, 재건최고회의 포고령<sup>25)</sup>에 의해서 전국단체, 문화단체 해산령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1년도에 또 현대사진연구회가 창립되는 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박: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그건 뭐…….

주: 그, 저, 그해하고, {최: 예.} 그, 해산령이 내린다는 건 전국 단위의 {최: (고개를 끄덕이며) 예, 전국 단위니까.} 단위의 단체들, 그러니까…….

이: 등록을 해야 되는 {주: 예.} 그런 성격의 단체들, {주: 예.} 이걸 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최: 예, [전국단위의 등록] 단체들만 이제 규제를 받았지, 이렇게 대학생들 모임이라든지, {이: 그렇죠.} 서클 그런 거는 전혀 {이: 전혀 뭐.} 문제가 없었고요.

황: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김선홍이라고 있었고, {박: (웃으며) 그게 김선옥이. 숙미회 멤버.} 문, {이: 응, 김선홍.} 문선호.<sup>26)</sup> 문선호 씨도 있었고, {주: 누구?} 현대 멤버 한참 늦게 들어왔지.

이: 예, 예. 그분들은 나이가…….

박: 아니야.

주: 김선홍 선생은…….

이: 기성세대예요.

박: 아, 김선홍? {주: 어.}

최: 그분이 회장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인데, {주: 회장, 많이 했지.} {박: 끝에, 끝에. 끝……} 그 사람은 삼, 그분은 삼성 무슨 기계 쪽의 직원이셨다고.

주: 아니, 그냥, 그 양반은 이제 저, 일찍이, 말하자면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갔는데.

박: 저기, 사진기를 파는 상점을 했었어요.

최: 예, 일성사라는 카메라점도 하셨어요. {박: 네.}

주: 일광사. {박: 일광사. 아……}

최: 일광사. 예.

주: 그건 나중에 그, 그 양반이…….

황: 문선호, 문선홍?

최: 아니요. (한 자 씩) 김선홍.

25)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부의 포고령 제6호에 따라 전국의 모든 문화예술단체가 해산되었으며, 1962년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로 재편되었다.

26) 문선호(文善鎬, 1923-1998). 1943년 일본 동경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校) 서양 화과 수료. 1951년부터 국방부 정훈국 중군사진 보도원 및 1953년 국방부 중군 화가단 단원으로 활동 후,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진가로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1968년 서울 중구 충무로 2가에 문선호사진연구소를 개설, 상업사진을 시작했고, 1976년 중구 저동 2가 문화빌딩에서 문선호사진사무실, 문화스튜디오, 문화화랑을 운영했다. 1987-1989년까지 한국 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문선호는 현대사진연구회 활동과 무관하다. 구술자의 기억 착오로 보인다.

주: 김선홍.

조: 김선홍 씨.

박: (한 자 씩) 선홍, 김선홍.

황: 문선호는 나중에 사협 회장도 하고 그랬지요?

주: (손을 저으며) 문선호는 현대사진연구회와 관계가 없어.

최: 없습니다.

박: 전혀 관계없어요.

주: 관계없어. 그 사람은.

황: 아니야, 문선호 들어왔어 그때.

주: 아니야. 안 들어왔었어. (동시에) {최: 아닙니다. 전혀, 예.} {박: (손사래를 치며) 아니, 안 들어왔어. 상업 사진 하잖아.}

황: 현대에 들어왔어. (손가락 두 개를 펴며) 두 사람. 두 사람 들어왔다고. {주: 어?} 아니, 그건 내가 확실히 알아. 왜냐하면은 동두천에 살아. 두 사람이. {조: (박영숙 선생에게 나지막이) 문선호 씨가 문현심이 아버지지?} {박: (조천용 선생에게) 응. 아버지.} 문선호 하고……. {박: (손을 가볍게 저으며) 안 왔어.}

주: (한 손을 뻗어 저으며 강한 어조로) 아, 그럼 그 문선호 아니야.

조: 아닌 것 같은데?

박: (손을 저으며) 그, 김선……김선홍 하고…….

주: 문선호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박: (팔을 뻗어 손을 저으며) 왜냐하면 광고사진을 이미 하고 있었어.

황: (손을 저으며) 아니야. 거, 나, 그건 확실히 알아.

최: 문선호 선생님은 제가 자료를 꽤 찾아봤거든요. 전혀 한 번도 (주명덕 선생과 박영숙 선생 동시에 손을 저으며) {주: 그건 현대사진연구회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박: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주: 동두천에, 저, 동두천에 있던 사람이 있어. 저, 그때 2사단에…….

황: 김선홍이, 그.

주: 어?

황: 김선홍이 동두천이라고.

주: 어?

박: 맞아, 김선홍도 {황: 김선홍.} 동두천이야.

황, 주: 어.

최: 이분은 삼성특수광업주식회사. 그 다음에 카메라점 일광사를 {주: 그래, 그래. 예.}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황: 그러면서 거기 들[어]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럽에.

주: 그, 광, 저.

박: 한참 후예요.

황: 한참 후에.

최: 아, 한참 후인데 (박: 네.) 나중에 회장, 연세가 좀, (박: 어, 네.) 연령층이 조금 높았던 모양이지요?

주: 나이 많았어요.

이: 그렇죠. 나이 차이가 있었죠.

박: 우리들보다 한 대여섯 살, (조: (박영숙 선생을 향해) 누가? 여섯 일곱 [살]. (주: (박영숙 선생을 향해) 누가, 근데? 김선희.

주: (손가락을 펴서 위로 올리며) 열 살 위야.

박: 열 살.

황: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 위였지. 한참. 한참 위였어.

최: 아, 그러면 전공자 선생님 그쪽 분들하고 거의 동년배이시겠네요?

주: 아니야. 전공자 선생님보다도 위였어요.

최: 오히려 더 많으셨구나. 네.

박: 성, 성격도, 응. 달라요. 우리랑.

조: (박영숙 선생을 향해) 김선희 씨는 우리보다 5살이 아니라 (박: 그니까, 나 몰라 그거.) 우리 아버지 대 빨이라고, (이: 그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들이…….

주: 아, 아들이 『동아일보』 기자였어. 어.

조: 맞아, 나하고 같거든. (주: 같어. 그래.)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지대 빨이야. 적어도 지금…….

주: 내, 내가, 저, 금호동에 김선희 선생 2층 방, 내가 작업실로 공짜로 얻어 쓰고.

박: (주명덕 선생을 바라보며) 잘 썼었어. (주: 어? (웃으며) 내가, 내 꺼 거기에서 프린트해서 개인전할 때도 했어.

조: 맞아요. 그니까 한 우리보다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위야.

주: 그럼. 그 위야.

박: 경제력으로도 달랐어.

최: 싸롱아루스가 1960년에 그, 창립이 되고요. 1961년 10월에 1회전하고<sup>27)</sup> 활동 중단한 이유는 뭐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근데 그때 멤버로 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게.

27) 《싸롱아루스 사진전》, 1961.10.19-25, 중앙공보관. 싸롱아루스의 첫 번째 전시이자 마지막 전시이다.

최: 우선 인원수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주: 인원수도 적고 말하자면 한 사람, 안 한 사람, 말하자면은 모이지만은…….

박: 경제력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

주: 그러니까, 그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그 당시 서울,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이, 지성적인 작가라고 그랬지만은. 지금 보면 그냥, 그냥 아마추어 클럽의 회원이야.

박: (웃으며) 아, 그런 것도 있고요. (주: 그럼.) 그, 싸롱아루스 멤버들은요, (손짓을 크게 하며) 대개 일본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최: 예.) 우리들은 그때 (최: 예.) 이제 『파퓰러 포토그래피(Popular photography)』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거 색깔이 다름으로 해서 그거를, 이걸 지성이라고 말하면 그게 지성이야.

최: 아, 이건 어쨌든 대학 재학생, 어쨌든 대학 출신이라는 건 그때는 어쨌든 희귀한, 예.

박: 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주: 그, 그렇지. 저, 제일 기억이 나는 거는, 우리 여기에 저, 조천용 씨가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현대사진연구회 회원이었을 때일 거야. (박: (나지막이) 응. 응.) (조: 응.) 근데 이 친구가 고대 학보사 기자였어. (최: 예.) 사진기자였는데, 학보사가 저, 사무실이 어딴었나면 (한손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지금 광화문 동화면세점 그, 그 부근이야. 옛날에 국제극장 앞에 (최: 국제극장 앞에.) 2층, 조그만 2층집이 학보사 (박: 극장.) (조: 6층.) 어? (조: 6층.) 6층짜리 집인가? (조: 어. 6층이야. 어.) 그래서 (조천용 선생을 향해) 그 2층에 사무실이 있었나, 그랬지?

조: 원래 사무실은 학교 안에 있었고, (주: 아, 물론.) 근데 출판, 저거, 어, 신문 찍는 데, (주: 그, 조선, 『조선일보』에서 찍었으니까.) (박: 『조선일보』에서 찍었나 보다.) 그 근처 어디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매주, 어, 목요일 날 거기서 모였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저, 뭐야. 미술 강좌니 뭐 그런 것을 (주: 어, 어.) 들은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거기가 교통이 좋으니까 거기서 하자 그래서 매,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닌가 싶은데. (주: (손에 든 펜을 흔들며) 그, 그 당시에,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맞아. 거기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

주: 내가 이제, 저 같이 이경성<sup>28)</sup> 선생이 흥대 계실 땐데 찾아가가지고 “우리 미학 강좌를 열 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박: (조천용 선생을 향해) 그거 혹시 숙미회가 주관한 것 아니었어요?

주: (손사래를 치며) 아니야. (조: 어디가? 뭐? (박: 응. 그, 아카데미.) (황: (사회자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경성 선생이 오셔가지고 한 6개월 강의를 해 줬어.

조: 그래, 오랫동안 했어.

주: 어. 그 다음에 그것 끝난 다음에 임응식 선생님이 사진사 강의를 또 해 줬어. (조: 응.)

28) 이경성(李慶成, 1919-2009). 미술 비평가. 국립현대미술관장과 초대 인천시립 박물관장을 지냈다.

그, 그래서 이형록 선생은 우리 식구이니까 말하자면, 늘 보니까 강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기를 뺏기 때문에 내가 이형록 선생한테 미움을 사게 된 동기야. {박: (웃으며) 아, 그게?} {조: (웃으며) 아. 그랬어?} 어.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조: (고개를 끄덕이며) 아~.} 왜 이경성 선생이나 임응식 {박: 그 '싸롱아루스 멤버도 아닌데' 이리면서} 선생님한테 하고 왜 나는 안 했냐 그거. 근데 우리는 우리 멤버이니까, 말하자면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했거든. {조: 응, 알았어, 그게 이해가 된다.} 어, 그 다음에 그것 끝난 다음에 뭐 했냐면 기억날지 몰라. 그때 뭐, {박: (사회자를 향해) 그게 다 (채록불가) 연구회} 누구지? 작가들, 화가 데리고 누구 한 자리에 한 사람씩 {최: 네.} 우리가 불러가지고 {조: 응.} {최: 예.} 차 마시면서 같이 또 프리토킹(free talking[discussion])하고. {조: 그래, 그래, 그래.}

박: 변, 변 누구지?

주: 응? {박: 그…….} 박서보<sup>29)</sup>도 하고 다 그랬어 그때.

박: 어. 그 다음에 또, 변 누구지? {주: 그래서, 이제 권옥연<sup>30)</sup>도 하고.

주: 어어. 그래. 그런 것 했는데. {박: (조천용 선생에게) 변 누구지?} {조: 응?} {박: 그 사람 파리에서 금방 왔을 때} 그게 이제, 그거 하면서 『사안』하고 뭐, 그게 이제, 다른 거하고 달라지는 계기였던 것 같아.

박: 그, 그, 아카데미가. 말하자면 연구회가.

최: 예. 1964년 6월에 나온 『사안』 제4호에는 이런, 그, 문장이 있습니다. '현대 암실이 생긴 후부터는 창일다방에 모이던 것이 없어지고 말았다.'<sup>31)</sup>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현대사진 연구회, 싸롱아루스가 다 공용 암실을 썼나요?

조: (박영숙 선생과 주명덕 선생을 향해) 잠깐만요. {황: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아냐. 그렇지 않아.} {이: 어디?} 그 현대 암실이라는 게 어딜 얘기하는 거지? {황: 암실…….}

주: 아니야. 암실이 없었어. 암실이 아니고 그런 것 없었어.

이: 그런 건 없었어.

조: 그거 말고…….주로…….

박: 그거 누가 썼어요? 그 글을?

최: 아니, 이걸, 이준근이라는 분이 쓴 겁니다. {박: 그러니깐…….} 이준근.

이: 이준근이라고 있었죠.

최: 예. 그분이 쓴 글입니다.

박: (이영훈 선생에게) 이준근이 있었어?

이: 네.

조: 근데 그게 현대, 제 생각에도 현대 암실이라는 건 따로 없었던 {황: 없었어.} 걸로 기억이

29) 박서보(朴栖甫, 1931). 서양화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62년부터 1997년까지 1997년까지 홍익대학교 교수·조형미술연구소장, 산업미술대학원장, 미술대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과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및 고문을 역임했고, 현재 서보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30) 권옥연(權玉淵, 1923-2011). 서양화가. 함경남도 함흥 출생으로 도쿄 데이코쿠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 서양화과를 졸업하였으며, 1957년에 파리로 유학을 떠나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Académie de la Grande Chaumière)에서 수학했다.

31) 이준근, 「나의 제안」, 『사안』, 제4호, 1964년 9월, 78쪽.

나고, 그때에 그 아까 얘기한 이창환 씨, 이창진 씨 {박: 이창진 씨.} 형제가 충무로에 한 6층짜리 빌딩을, 어, 자기네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2층에다가 암실을 만들었어요. {최: 아, 예.} {박: 그거 얘길 텐데.} 그래서 우[리], 어? {주: 그치, 그} {박: 그것밖엔. 어. 그 얘긴데, 그런 거는 모르죠.} 그 얘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거의가 다 거기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거기 가서 작업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지금 이게, 현대사진연구회 암실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싶은데.

최: 그게 한 64년쯤에 만들어졌나요? 그럼 그…….

조: 육십……(허공을 보면서) 잠깐만요. {주: 아니, 뭐, 하여튼 그때, 다 그 시기일 거야.} 네, 63년, 64년 뭐 그때 개가 맞습니다. (동시에) {박: 우리 대학 졸업을 63년에 했으니까}

최: 네, 그럼 뭐, 그게 만들어졌다는 얘기 같은데요?

조: 네, 그게 그 얘길 겁니다. 아마. 그게, 따로 그건 아니고.

박: 그리고 이제 그때 이미 다들 취직들 했어요.

조: 그래서 그게, 그 두 형제가 기계를 전부 다 사다놓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이렇게 했거든요. {주: 그렇지.} 그래서 언제든지 거기 가서 작업을 하고 전시회 할 것 있으면 거기에서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주: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래 맞아. 그, 그, 그게 창환이네 암실이야.

조: (주명덕 선생을 가리키며) 그래, 맞아. 거길 거야. 어. (동시에) {박: 그걸 거예요. 그것 밖에는 없어.}

최: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사진연구회의 암실이 생긴 후' 이렇게 쓴 것 같으네요. 그게.

황: (한 손을 흔들며) 아니, 현대사진연구회 암실이라는 게 없었어요. {최: 암실이 아니냐.} 각자 있는데 가서, 편리한 데 가서 프린트하고 {이, 조: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랬지.

박: 주로 모이기를 그 빌딩에서 잘 모이고, 거기서, {조: 그리고 이제 저 『사안』도 거기에서 출간했지, (주명덕 선생을 바라보며) 그지?

조: 그리고 이제 그 2층에, 2층에가, 저, (손으로 반원을 그리며) 그 집 거실이 굉장히 컸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억이 나는데, (박영숙 선생과 사회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박: 월례회를 했지.} 월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들 찍어 온 거를 에이바이텐(8×10)으로 전부 다 작업을 해서 걸어놓고, 어, 품평회를 하고 뭐 그런 적 있었습니.

최: 그 품평회 풍경 좀, 기억나시는지. {조: 품평회.} 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조: 그건 아마 그때, (박영숙 선생을 바라보며)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박: 한 달에 한 번이야. {황: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조: 어 그런 것 같애. 그래서…….} 월례회잖아 월례회.

조: 아니, 그거 말고, 어, 촬영하러들 같이 모여서 나간 적 있었거든 여러 번.



전시장에서 이형록, 이상규, 이창환,  
연도미상.(1962년 추정)

박: 일요일이면 갔지. {이: 그럼}

조: 일요일. 매주 갔었나 그게?

박: 매주 갔…… {조: 어, 그래갖구……} 매주 갔는데 어떤 사람은 안 가고, {이: 그렇지} 어떤 사람은 가고.

조: 소래포구의 그 옆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저기 같이들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괜찮은 거를 각자가 프린트를 해서, 어……이창환 씨 그 집 2층 거실이 넓으니까 거기에 다 이제 쪽 걸어놓고 한 사람에 아마 대략 한 석 점 내지 다섯 점정도 아닌가 싶은데, 전 그때 이제, 난 이걸 어떤 의도로 찍었고, 그때 주로 했던 게 아마 {박영숙 선생을 향해} 이형록 선생 아니신가 싶은데. {박: 그때}

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친용 선생을 향해} 어, 이형록 선생님이 많이 하셨고.

조: 이형록 선생님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박: 김, 초기에는 그랬는데, 김행오 선생님도 많이 하셨어.

이: {손으로 원을 그리며} 아, 싸롱아루스 멤버가 전부 {검지로 앞쪽을 가리키며} 코멘트를 하셨어요.

조: 응. 그래서, 아, 개개인이 어떤 의도로 찍었는데, {박: {주명덕 선생에게 작은 목소리로} 난, 김행오 선생님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주: 응?} {박: 김행오 선생님.} {주: 음.} 그럼 이제 그분 선생님들은 “아, 이걸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도도 해 주시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 나는 사진 촬영하러 같이 별로 많이 다니지 않았어.

박: 가지 않았어.

주: 응. 나는.

황: {손가락 하나를 펴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주: 어.} {양손으로 모으는 시늉을 하며} 찍어오면, 찍어오면은 {조: 응.} 이형록 선생을 주로 해가지고 그 멤버들 한 마



현대사진연구회 출사, 1961년 5월.  
좌측부터 이상규, ( ), 한광희, 전몽각,  
( ), 황규태, 이영훈.

디씩 다 했지.

최: 예. 김행오 선생님도 한 마디 하시고, {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황: 그래, 바로.} 이 상규 선생님도 한 마디 하시고, {조: 맞아, 그래. 어어어어.} 네.

황: 자기들 생각 한 마디씩하고, 거기에서 투표를 했던가? 해가지고 {조: 음.} 제일 점수 많이 받은 사람을 {박: 필름을 줬어요.} {웃으며} 혼마끼(本巻き)<sup>32</sup> 필름 하나를 {박: {웃으며} 혼마끼.} {조: 아, 그랬어.} 상을, 상을 줬어요.

최: 그러면은 투표는 싸롱아루스 회원 분들이 투표를 하셔가지고 다 채점자가 이제…….

황: 예, 그렇지, 그렇지. 맞아.

주: 아니, 그러니까 싸롱아루스 회원이 현대사진연구회원을, {황: 지도한 거지. 지도분거지, 지도부.} 그러니까, 싸롱아루스는 선생님 그룹이고 말하자면 {박: 우리는…….} 현대사진연구회는 제자 그룹이에요.

조: 그렇지. 음.

최: 예, 그러니까 우수상, 월례회 때 우수상을 주는 분들도 그, 싸롱아루스의 회원 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다 채점자가 우수상 결정자가 되는 건가요?

이: 이제 {박: 그제…….} 그렇게 투표라는 그런, {최: 그런[것까진] 아니어도.} {박: [투표는] 없었지만…….} 그런 형식까지는 안 했지만은…….

최: 당신들끼리의 의견이 모아지면…….

박: 토의에 의해서…….

이: {두 손을 앞쪽으로 모으며} 그분들이 숙의를 해가지고, 그걸, 평가를 [했죠].

최: 예. 어, 그래도 이제, 연례 전시회가 쪽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때 좀 과정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작품을 선정했고, 뭐 몇 점씩 했고, 누가 골랐고, {박: 여기 회(會)에서, 현대사진연구회 연례회 전시를 했나? 누가 디피를 했고…….}

박: 한두 번 했나?

32) 24장짜리 완제품 필름 즉, 메이커(미국의 코닥, 일본의 후지, 사쿠라, 독일의 아그파) 정품을 말하는 일본어다.

이: 아, 했지.  
 최: 했죠.  
 박: 한두 번 한 것 같아.  
 황: 뭐, 공보부에서 한 번씩 했죠.  
 박: 응?  
 황: 공보부.  
 조: 연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 난, 두, 두 번 기억은 나.  
 박: 두 번 정도 한 것 같애. {이: 두 번은 기억이 나.} {조: 어, 맞아. 매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응.} 응. 두 번 정도 한 것 같고. {주: 두 번 했어. 두 번 했을 거야.} {조: 두 번, 맞다.} 그게 뭐 연례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숙미회밖에 없어요. 연례적으로 한 거는 숙미회만 있었어요.  
 최: 어, 현전[현대사진연구회전] 장소가 4회전까지는 모두 중앙공보관에서 했고요. 5, 6회전은 신문회관 그리고 또 7, 8회전은 중앙공보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8회까지 했다는 얘기는, 61년에 했더라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예, 한 해 정도 거를 수는 있어요. {조: 맞아요, 그럴 겁니다. 네.} 거의 매년 했던 게 분명합니다. {박: 아-, 그……}  
 조: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기억에는 매 해는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 근데 나중에 공보관은요, 덕수궁 안에 있었어요.  
 최: 중앙공보관이요?  
 황: 거기서…….  
 박: 예, (오른손을 들며) 첫 번째는 북창동에 있었는데 {최: 네.} 지금 마지막 신문회관 그 다음에 한두 번 지금, {최: 7, 8회전.} 7, 8회전은 그 저, (양손을 모으며) 덕수궁 대한문 안에 우측으로…….  
 주: (손사래를 치며) 덕수궁 안이 아니라. 어? {박: 응.} 체신부가 있는데. {박: 응.} 지금, 그 저, 어디야? 저. {박: 정동극장.} 정동극장 있는 데 {박: 응.} 지금 그 저, 바로 바로, 그, (양손으로 테이블 위에서 위치를 가리키며) 덕수궁 코너에 {박: 코너에.} 얻어가지고 {박: 응.} 그건 덕수궁 안이라 그러면, {박: 가건물. 가건물.} (손사래를 치며) 안이 아니지. 들어가는 건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지, {박: 어, 맞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황: 덕수궁 코너에 그게 있었어.  
 박: 응, 있었어. 그래서 그게 가건물로 만들어진 공보관이었어요. 좀 더 체계 있는 공보관.  
 주: 그래서 그건 금방 없어졌으니까, 정부가 말하자면 문화부가 해서 없애버린 거니까.  
 박: 그게 75년에 나도 거기서 전시를 뭘 만든 적이 있으니까.

주: 공, 그건, 공짜 전람회장이었으니까.  
 최: 그러면 그때도 만약에 연례 전시회를 한다 그런다면은 싸롱아루스 회원 분들이, 예, 전시할 작품을 선정하고 뭐, “너 몇 점해라” 뭐 이렇게……. 그런.  
 주: (고개를 살짝 흔들며)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박: 그렇게 대단히, 그렇지는, 억압적이지 않았어.  
 이: 아, 그래도, 그렇게 심사를 하셨죠.  
 최: 하셨겠죠. {이: 그림.} {주: 어, 맞아.} 싸롱아루스 그분들이 전시작을 결정을 하고, 예, 이: 싸롱아루스 멤버들이 숙의를 해 가지고 {최: 예.} 그, 작품발표회, 그, 선정을 {최: 예.} 뭐, 다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섯 점, 여섯 점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작품성이 있는 거. {박: 응.} 그분들이 인정을 한 것만 했죠. {박: 기억이…….}  
 최: 중앙공보관이나 그쪽에 그, 신문회관 임대절차 뭐, 혹은 임대료 그런 게 있었나요?  
 주: 아니, 저, 중앙공보관은 임대료가 없고 {최: 예.} 신문회관은 임대료가 있었죠.  
 최: 예. {박: 신문회관은, 돈…….} 그래 가지고 그냥 대개 전시를 하겠다, 언제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뭐 대관을 {황: 뭐, 신문회관은…….} {이: 신청을. 그렇죠, 신청을 해야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나요? {이: 네.}  
 황: 신문회관은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주: 어?} 난 미국 간 후에 신문회관에서 한 모양인데 {이: (황규태 선생을 향해) 어. [미국] 간 후에지.} {주: 내, 내가 보니까. 신문…….} 나는 그냥 공보관에서만 했거든?  
 박: 했었는데.  
 주: 저, 아까, 이렇게 내, 그, 셋이서 전람회 한 걸 보니까 신문회관에서 했는데 1963년 이야.<sup>33)</sup> {박: 응.} 내가 전람회 한 게. {박: 응.}  
 최: 예, 선생님은 63년에 하셨습니다.  
 박: 그, (주명덕 선생을 바라보며) 관이하고 셋이 한 거?  
 주: 어. 그게 63년에 한 게 신문회관이야. 빌려서 한 게.  
 박: 그게 우리들 졸업한 후에 일거야. 그지?  
 이: (박영숙 선생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신세계백화점 그 옥상 전시관에서 우리 한번 안 했나 그때?  
 박: 그거는, 거기는…….  
 최: 어, 거기 동화백화점이죠. {황: (고개를 끄덕이며) 동화백화점.} 예. 그쪽에서는 한 게 좀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박: 그건 다른 사람 전시를 우리들이 가봤겠지.  
 이: 그런 것 같은데?

33) 주명덕, 감관, 김승원, 《사진 3인전》, 1963.9.20-26, 신문회관 화랑.

황: 우리가 거기서 하지는 않았지요.

이: 딱 전시회를 거기에서 많이 했으니까.

황: 우리가 하지는 않았어.

박: 네. 우리가, 우리가 아니고, {이: 우리가 아니고, 띤[전시를]} 내가 거기에서 한, 그, 누구지? 남관<sup>34)</sup> 선생님 전시 우리들 가서 본 기억이 있고.

이: 거긴 뭐, 전시회, {박: 응;} 여러 가지 미술 전시회도 많이 했고 쪽 그랬으니까…….

박: 그, 이경성 선생님 때문에 거길 또 간 기억이 있고 그냥 그래.

최: (주명덕 선생을 향해) 근데 선생님. 63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65년 아니십니까?

주: 어떤 거?

최: 수도화랑에서 한 거요.

주: 응?

최: 수도화랑에서 한 게 65년 아닌가요?

주: 수도화랑?

최: 예.

주: 신문회관. 아니, 신문, 저, 신문회관 화랑.

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요. {주: 어.} (자료를 보며) 선생님이 65년 1월 3일에서 15일까지 수도화랑에서 《어린이 주제에 의한 주명덕 사진 소품전》.<sup>35)</sup>

주: 그, 그, 그거는, 그건 살롱 달리앙스.

최: 예, 살롱 달리앙스.

박: 그거가, {주: 응.} 그거는, 저기, 어린이 주제가 아니라…….

주: (김소희 연구원에게) 그, 저, 아까 얘기[한 것 가지고 왔나요?]…….

최: 그럼 수도화랑하고 {주: (김소희 연구원에게) 갖고 왔어요?} 살롱 달리앙스는 틀린 데죠?

박: (손사래를 치며) 다른, 다른 공간입니다.

최: 네, 알겠습니다.

주: (김소희 연구원에게) 네? 가지러 갔어요? 지금 갖고 오면. [3인 전시는] 63년이야 그거는.

최: 63년에도 개인전을 하셨어요?

주: 아, 개인전이 아니라 셋이서. {박: (주명덕 선생과 동시에) 그거는 셋이.}

최: 셋이서요?

주: 어.

박: 감관이라는 친구하고 {황: (주명덕 선생과 박영숙 선생을 향해) 근데 내가, 그때 63년도에 있었는데? 김승원 하고, {이: (황규태 선생을 바라보며) 응?} {황: 63년에 내가 여기 있었다고.} {조: 그렇지. 있었지. 그때는.} (주명덕 선생을 가리키며) [3인전] 이걸 아주 기습

34) 남관(南寬, 1911-1990). 서양화가. 경상북도 청송 출생으로 14세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 1935년 동경의 다이헤이요미술학교(太平洋美術學校)를 졸업했으며, 1954년에 프랑스로 떠나 1968년에 귀국해 홍익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35) 《어린이 주제에 의한 주명덕 사진 소품전》, 1965.1.3.-15, 살롱달리앙스.



『사안』 5호 표지, 1965년 12월.

적인 전시였어. {최: 아, 네.} (주명덕 선생을 향해) 나 그거 기억해. 감관 하고 같이 우리 왜 이렇게, 저기, (한 손을 뺏으며) 한강에서부터 저-기까지, 그, 촬영 다녔던 기억이 나.

최: 저, 64년 8월 25일 날 현대사진연구회 기관지 『사안』 제1호가 발행 됩니다.<sup>36)</sup>

박: (메모하며) 1호? 몇 년도? (동시에) {황: 몇 년도? 몇 년도?}

최: 예. 65, 64년 8월 25일이요.

박: 1964년 8월?

최: 25일.

박: 음.

최: 그, 회보명은 누가 지었습니까? 그 『사안』이라는.

황: (사회자를 향해) 뭘? 뭐를요?

최: (한 자 씩 강조하며) 『사안』이라는 회보명. {황: 어.} 그, 잡지명을 누가 지[으]셨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황: 그, 저, 누가 한 것 아닌가?

주: 그건 이형록 선생님 아니면 누가 지었겠지 뭐. 그때.

박: 이형록 선생님 아니면 김행오 선생님 정도.

황: (고개를 끄덕이며) 김행오 선생. 두, 두 사람.

최: 예. 최인진 선생님 글로는 {박: 왜냐면 이 『사안』이 김행오 선생님이 지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조: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 그래 그래. 어.} {황: 씨롱아루스는 김행오 선생이 지었어요. 예.} {최: 예, 예.} 왜냐면 이, 그, 이 『사안』이라는 글씨가 김행오 선생님이 했다는 생각이 나도 들어요.

36) 씨롱아루스와 현대사진연구회는 회지 『월보』를 1964년 6월에 창간했다. 2호부터 『사안』으로 개칭했고 3호부터 팸플릿 형태를 책자형으로 변형하면서 내용을 늘었다. 사회자가 창간일을 혼동했다.

최: 예. 아까 뭐, 그, 박영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팔뜨기라는 뜻이거든요?  
 사안? {조: 응.} {이: 예. 그럴 거예요. 예.} 사시 '사(斜)'.

황: 아니야, 사진 '사(寫)' 자 아니에요? 사진 '사'.

이: 아니, 아니야.

최: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아니, 아니. 비킬 '사(斜)' 자입니다. {황: (고개를 끄덕이며) 어, 그 령구나.} 그래서 그게 {박: (손사래를 치며) 근데 우리들 최인진 선생님 글에 의하면은 그 게 이제 표준렌즈보다 와이드 렌즈에서 {박: (손사래를 치며) [최인진] 선생님 정말 자기 맘대로 했다.} 이렇게 왜곡되는 그러한 의미를 {박: 아닌데.} 보여 준다고 해서 『사안』이 라고 했다고 최인진 선생님 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sup>37)</sup>

박: 그거 최인진 선생님 생각일 것 같아요. 우리들 머릿속에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이렇게, 그, 빛이 (한손으로 사선을 그리며) 사, 이렇게 45도 각도로 들어와야 콘트라스트(contrast) 한 사진이 되니까 그 사진을 좋아했던,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최: 아, 예. 근데 이형록 선생하고 대답할 때 한 얘기예요.

박: 어머니.

황: (사회자를 향해) 누구하고 얘기할 때요?

최: 최인진 씨, 선생하고요. {황: 어.} 이형록 선생하고 얘기했더니…….

황: (팔을 뻗으며) 그럼 이형록 선생이 그렇게 얘기 한 거예요?

최: 예. 예.

황: 그럼 그 말이 맞겠지.

최: 예. 이형록 선생이 {박: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아닌데.} 얘기했는데, {황: 응.} 이름은 김행오 선생님이 지었고 {황: 응.} 이 『사안』이라는 좀 특이한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제 와이드 앵글, {박: (나지막이 놀라며) 하.} 그거, 그거 하면은 이제, {황: 어.} 그럼 그 말이 맞아. 예. 옆으로 퍼지니까 그래서 와이드 앵글의 그 화면을…….

황: 이형록 선생이 얘기한 거면 그게 맞아요.

최: 예.

조: (사회자를 향해) 최인진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최: 아니요. 이형록 선생님하고 최인진 씨랑 대답을 했는데, {조: 아, 네.} 대답하는 과정에서 {박: (나지막이) 그건 난 아닌 거 같은데…….} 이형록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 아, 그럼 맞지 않을까?

황: 그렇게 대답했다고?

박: 아니, 그, 그, 사실은……, 몰라.

주: 아니, 아무튼 그렇게 비슷하게 하자고, {박: 하하, 근데…….} {조: 응.} 우리가 그거 하는 데

37) "제호는 회원들에게 현상 모집을 했다. 김행오가 사안이 어찌느냐고 제호를 제시했다. 사안이 무슨 뜻이냐, 우정 표준 렌즈로 찍는 것보다도 와이드 앵글로 찍는 것이 유행도 되고 또 그게 새로운 맛이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찬성을 했다.", 1999년 7월 5일 최인진, 이형록 대담 발췌문 중 재인용, 최인진, 『한국 사진잡지의 역사 下-1』, 『한국사진』, 1999년 8월호, 35쪽.

거 뭐 중요해. {조: 응.} 그냥 그렇게 하면…….

박: 아니, 왜냐하면 최인진 씨가 그, 현대사진연구회 멤버들의, 하고 친교도 없었거든요.

주: 아니, {조: (박영숙 선생에게 손을 뻗으며) 아니, 아니. 그거 관계없이…….} {최: 이형록 선생님과 인터뷰 한 거.} 그게 이형록 선생님 하고 인터뷰 한 거…….

박: 근데 이형록 선생님이…….

조: 어. 이형록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맞지 않을까? 최인진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우려가 가지만 이형록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건 그렇지 않을까' {황: 그건 이형록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그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 맞아. 최인진이는 사실은 뭐 별 다른 것이 없는 거고. {황: 최인진 씨는 다만 인터뷰만 한 거지.} 맞아. 그럼.

최: 그러니까 뭐, 그때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 보면요, 『사안』이 무슨 뜻이냐? 우선 표준 렌즈로 찍는 것보다 와이드 앵글로 찍는 것이 유행도 되고 또 그게 새로운 맛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 그거 이형록 선생님 얘기입니까?} 예,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조: 그러면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음.} {황: (고개를 끄덕이며) 어, 어,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 『사안』이라 저도 너무 특이했는데, (양손을 넓게 벌리며) 아, 와이드 앵글로 하면 이렇게 옆으로 이제, {조: 응. 응. 넓게.} 예, 그러니까 넓게 나오니까.

이: 근데 제가 그때 저도 그거 무슨 뜻인가 헤가지고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기억으로는, {박: 기억으론.} 어, 사물을 보는 앵글을 {박: 응.} 정면으로만 이렇게 봐 가지곤 {최: 네. 아.} 뭐가 사진다운 면이 안 보인다. (머리와 한 손을 약간 돌리면서) 눈으로 살짝 살짝 돌려보면은 {황, 주: (웃음)} {최: 아, 예예.} '거기에 사진다운 뭐가 있다' {최: 네.} 이런 데서 『사안』, 왜냐하면 와이드 앵글이라는 거는 {박: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 따라서 와이드 앵글 쪽 사진을 사진적인 가치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현상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와이드 앵글이, 와이드 앵글을 그렇게 그, 표제까지 해 가면서 하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박: 내 생각에는요. {황: (이영훈 선생을 가리키며) 이쪽이 타당성이 있네.} 이형록 선생님이 우리들 감각하고는 달라요. {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에 동의가 안 돼 나는.

최: 아주 상식적으로, 표준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그렇죠, 그렇죠.} 조금 비켜서 남과 다르게 보는 {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시선. 예, 그런 의미에서 『사안』이었다.

이: 왜냐면…….

박: 아니, 내 머릿속에는 그거예요. 이렇게 빛이 (한 손으로 사선을 그리며) 이렇게 들어와야 굉장히 콘트라스트(contrast) 한……. {이: 이제, 그것도, 그, 넓게 보면 그게 더 저한테는 더…….

이: 그거에 하난데, (검지를 들며) 왜냐하면 그때 그, 카르티에 브레송의 사진이 그 사람은 '50밀리(mm) 정각, 그 렌즈만 주로 {박: (웃으며) 맞아.} 사용을 한다. {박: 응.} 왜냐하면 광각이나 망원을 쓰면은 왜곡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진의 진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걸 늘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다고요.

박: 그러니까, 이, (두 손을 내밀며) 우리가 이형록 선생님하고 {이: 그[게], 정론이지, 정론.} 우리들하고 많이 틀린 지점이 지금 딱-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그분의 그 말에 전 동의 안 되는 거예요.

주: 근데 사실은, 사실은 브레송도 표준보다 35밀리(mm)로 찍은 게 더 많아.

이: 뭐, 하여튼 그렇지만은.

박: 보통 라이카가 거의 줌 시작이 35밀리(mm)…….

주: 35밀리(mm)로 찍은 것이 더 많아요.

박: 시작이 35밀리(mm).

이: 하여튼 그런 얘기는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이드 앵글은, {최: 예.} 와이드 앵글의 의미는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 그 『사안』이라는 면에서 볼 때에는…….

박: 아니, 저는 사팔뜨기라는 말은 써본 적도 없다고요.

최: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그건 이제 막말로 해서 사팔뜨기지.

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이: 그렇죠.} 특이한 시점, {이: 색다르게.} '남들이 보지 않는 시점을 우리는 추구한다.' {이: 예, 그렇지요. 예.} 그러한 의미에서 『사안』이라고 했더라고.

박: 그, 이형록 선생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사안』 멤버들의 생각보다.

최: 예. 『사안』이 어쨌든 64년, 65년엔 한국 잡지가, 월간 잡지가 부재했던 시기입니다.

박: 그래요?

최: 예. 66년에 이제 『사진예술』 하고 잡지가 나오게 되는데, 『카메라 예술』, 『포토그래피』. (주명덕 선생이 파일 케이스에서 팸플릿 자료들을 꺼내 들고 사회자에게 다가가 내밀어 보이자 자료를 보며 나지막이) 아, 예. 잠깐만.

박: 아, 내가 아까, 저.

주: (사회자 단상 맞은편에 서서 사회자에게) 이거 맞지?

최: (팸플릿을 보며) 예. 예.

황: (자료를 향해 손을 뻗으며) 그, 그것 좀 봐봐요, 한 번. (주명덕 선생이 팸플릿 하나를 건넨다.)

박: (사회자를 향해) 거기 어디야? 장소?

최: 아, 이건 개인전은 아니셨고 어쨌든

주: (사회자에게 옛 자료들을 보여주며) 개인전은, 이게, 살롱 달리앙스.

최: 그룹전. 그룹전. 예. 살롱 달리앙스가 예, 63년. {주: (고개를 끄덕이며) 응? 응.} (주명덕 선생이 황규태 선생이 들고 있던 자료는 이영훈 선생에게 건내고, 사회자에게 보여준 자료는 조친용 선생에게 건넨다.)

박: (주명덕 선생 자리에 놓인 파일 케이스에서 무언가 찾으며) 아니, 주 선생님, 그거 말고 왜, 셋이 거, 조그마한 것 있잖아.

주: 어, 어.

이: (자료를 보며 나지막이) 그, 그게, 아, 여기 있구나.

주: (이영훈 선생에게) 이게 포스타[포스터]야 이게.

조: (자료를 살펴보며) 이야, 그래도 이게 있네.

박: (파일 케이스에서 고른 자료를 보며) 나는 이, 이게 신문회관 화랑. {주, 조: 응.} 이게, 이게 지금……. {주: (박영숙 선생이 꺼낸 자료를 건네받으며) 이게 이거 아니야.} 이거 같은 건가? {주: 그럼. 같은 거지.} (웃으며) 그게 더 좋아.

주: (선생 자리에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사회자에게 재차 다가가 보여주며) (채록불가)도 있어. {최: 아, 예.} 신문회관.

박: (자료를 들어 흔들며) 이게요, 이, 이게 그래도, 이거, 현대사진연구회 몇, 이면서 혼자 옆으로 친구들하고 이게 따로 활동한 거예요.

황: (사회자에게) 그 다음은요?

최: 현대사진연구회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64년, 65년 우리나라의 한국 사진잡지가 부재할 때 만들어 냈던, 그래도 좀 잡지적인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사진계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많이 배포가 되고, 소위 좀 회자가 됐었는지요?

박: 어떤 느낌이나면요. 우리들이 잡지사 기자했을 때, 사진 부장을 내가 무시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이 뒤에 이런 『사안』이라는 잡지 이런 거 때문이었거든요.

최: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 그 말은 무슨 말이나면은, 다른 잡지, 제가 그 전에 『여상』<sup>38)</sup>이라는 잡지사의 그, 사진 부장하고 내가 표지 갖고 싸우다가 저 쫓겨났거든요. {조: 하하하하.} 그런데 쫓겨낼 때 여자가 가장인, 아들이 둘이나 있는 가장을 갖고 이렇게 (웃으며) 놀았다 그러면서 날 내 쫓았거든. {조: (박영숙 선생을 향해 웃으며) 불경스러웠군, 뭐.}

최: 예. (웃음)

박: 그런데 그거가[그게], {조: 응.} 이 『사안』이라는 잡지와 우리들이 굉장히 아카데미하게 {조: 응.} 이 친구들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으스스했다는 얘기에요.

38) 신태양사에서 1962년 11월부터 1967년 11월까지 발행된 여성교양지.

최: 아, 예, 아까, {박: 으스스했지.} 박 선생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싸롱아루스 이전의 분들은 대개 이제 사진을 학습하게 되는 게 대개 일본 서적? {박: 예.} 예, 잡지를 통해서였겠죠. 그랬고,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엔 싸롱아루스 회원이죠, 이상규 선생님이라든지 김행오 선생님. 특히요, 그분들에 의해서부터는 미국 쪽에, 예-, 뭐라고 해요, 지침서? 혹은 이론서, 잡지를 보게 되신 것 같아요. 왜…….

황: 그것은 김행오 씨에 의해서 {박: 김행오 씨 덕이에요.} 전적으로 김행오 씨에 의해서 미국 쪽…….

최: 예. 그런데 왜 딱히 『파플러 포토그래피』라는 잡지를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많이, 그, 이용하고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박: 그때는 {조: 딴 게 뭐가 없었지 않나?} {손으로 사각형을 그리며} 그 잡지사 하나에서 『US카메라』, 『파플러 포토그래피』, 『모던 포토그래피(Modern Photography)』 3개가 한 군데서 다 나왔어요.

최: 그러니까 일종의 타임 코퍼레이션이 여러 잡지를 많이 내듯이 {박: 그렇죠.} 일종의 {박: 그랬었어요.} 『파플러 포토그래피』라는 잡지에서…….

주: 그런데 그 세 회사가 단, 한, 한 회사 아니야.

박: 아니지만은…….

이: 한 회사가 아니에요.

주: 그 시대에 같이 나온 거지.

이: 응. 같은 시대에 3대, 저기, {주: 응. 근데 그, 저} 사진잡지였지.

주: 지금,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 그 앞에 가면, 저, {박: 미광사 옆에 {웃음}} {최: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 그 입구 골목 그쪽이죠?} {박: 그 뒷골목.} 거기하고 지금 저, 옛날 상업은행 본점 골목이 전부 다, 다, 그,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최: 아, 흘러나오는 그런 사진 잡지들.} 책들이 다 그런 거였거든.

최: {이영훈 선생에게} 그래서 선생님들도 거의 뭐, 어떤, 뭐, 사진의 어떠한, 뭐, 기술적인 정보라든지, 해외사진 동향 그런 거는 다 그러한 미국에서 {주: 그, 그렇지.} 나오는 잡지를 통해 갖고…….

이: 그러니까 미국 그거 셋, 그거 세 개 보고…….

주: 그 다음에…….

최: 『파플러 포토그래피』 하고 『US카메라』 하고요? {주: 어.} {이: 어. 모던[포토그래피] 하고 그랬는데…….} {박: 『모던 포토그래피』 하고.} 또? 『모던 포토그래피』 그 세 개 잡지. 예.

이: 『모던 포토그래피』인데, 그, 『파플러 포토그래피』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거기가 우리들 생각에 참 작품성이 있는 사진들이 『파플러 포토그래피』에 많이 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US카메라』 같은 건 {잠시 생각하다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평범한 스냅샷 같은 것도 많이 실린 것 같고…….

최: 주명덕 선생님. 그 『US카메라』에서 입선도 하신 적 있는데<sup>39)</sup>, 그러면은 거기서 잡지에 관한 공모전 공고를 보고서, {주: {고개를 끄덕이며} 공모전이, 공모전이죠.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박: 잡지에 나는 공모전에.

최: 예.

주: 예. 근데, 그거하고 또 국내에, 또 반대로 이제 『마이니치 카메라(毎日カメラ)』<sup>40)</sup>하고 『아사히 카메라(朝日カメラ)』<sup>41)</sup> {최: 네.} 보는 층도 또 굉장히 많고. {박: 응. 어른들이지.}

최: 아니, 선생님들 세대에서도 {주: 우리도 세대도 같이 봤죠. 아사히…….} 『마이니치 [카메라]나 『아사히 카메라』도 보고. {주: 예, 예. 주로, 이제.}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제, 한국 사진의 어떤 실기적 이론이나 동향의 정보가 {주: 예.}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이제 잡지도 그게 아마 좀 관련이, 일본에 의존하다가?

주: 예. 그래서 우리 시대 보면은 다 같이 미국 잡지하고 일본 잡지하고 다 같이 본 동 시대죠.

박: {주명덕 선생에게} 그거 아닌가? 일본은 오히려 유럽을, 유럽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들어왔고…….

주: 아, 아니, {박: 아닌가? 일본은 독특한 그게 있으니까. 어.}

최: 현대사진연구회가 이제, 사실 두 가지 유과가 『사안』을 보면 굉장히 좀 침체하게 대립하거든요. 하나는 리얼리즘 사진을 추구하는 부류고,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전몽각 선생님. [사진 활동] 뒤에요. 전몽각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임응식 선생님도 이제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번(辯)은 뉴 비전(New Vision)<sup>42)</sup>이라든지 독일의 주관주의적 사진<sup>43)</sup>, 거기에 기반을 두신 이상규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형록 선생님도 이제 그쪽을 지지하는 그러한 듯한 발언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김행오 선생님도 그랬고요. 그분들끼리 어떤 인간적인 갈등, 사진 경향에 대한 어떤 선호 문제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대립 플러스 또 어떤 인간적인 대립이 계셨나요?

주: 그런 거는…….

황: 발언은 리얼리즘, 리얼리즘 했는진 모르지만, {최: 네.} {손가락을 하나씩 점으며} 전몽각 씨나 이상규 씨나 {최: 김행오 선생님.} 김행오 선생은 {손사래를 치며} 보도사진적 그런 사진이 아니에요. 전부, 어, {박: 조형적이지.} 어, 회화성 있는 그때의 이론은……. {최: 전몽각 선생님이요?} 전몽각 선생.

최: 전몽각 선생님은 전향을 합니다. 예. 초기 사진은, 말씀하신 대로…….

황: 사진 자체는 전부 전시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몽각 선생은 {큰 원을 그리며} 큰 달에

39) 1963년 《US카메라콘테스트》에서 주명덕 작 <불봉군>은 제6위에 입상했다. 그 외에 현대사진연구회 회원으로 전몽각 작 <계단>, 민경자 작 <상념>, 황규태 작 <길>이 제6위에 함께 입상했고 민경자 작 <노을 넘어>는 제5위, 이영훈 작 <담>과 황규태 작 <숲속의 아침>은 제4위에 입상했다.

40) 일본 마이니치신문사에서 1954년부터 1985년까지 발행한 사진잡지.

41) 일본 아사히신문사에서 간행하는 사진 전문 월간지. 1926년 4월 창간했으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 잡지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42) 모홀리나기(Laszlo Moholy-Nagy)에 의해 제기된 예술론으로 사진을 전통적 현실모사의 기계적 재현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새로운 비전(New Vision)을 탐구하는 매체로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43) 독일의 사진가 오토 슈타이너트(Otto Steinert)에 의해 제기된 사진예술의 한 방법론. 1910년대 독일에서 유행한 신즉물주의의 맥을 이으면서 등장해 이후 독일 사진예술의 중요한 흐름을 이끌었다. 피사체에 충실하되 작가의 강한 주관을 표현하고자 했다.

(좌) 김행오, <애무>, 1962.  
(우) 이상규, <침식>, 1962.



다가 {최: 예, 그건, 예. 예.} 아이들 노는 거라든가, 뭐, 김행오 선생은 뭐 엄마 젖 먹인다든가, 뭐 하는 미술적, {최: (고개를 끄덕이며) 예. 역광 실루엣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죠.} 사실적 어, 그런 사진들을 했지, {박: 살롱픽처.} 그 주장은, 주장은 내 들어 보질 않아서 모르겠어. 발표되는 사진들은…….

주: 근데, 그, 그거, 이제 말하자면, 그 이상규 선생의 이제 물가에서 오는 그 실루엣 사진.

황: 그렇지, 길 같은 것 (양 팔을 앞으로 뻗으며) 짝- 되어 있는 실루엣.

주: 그 사진이 한 번은 그, 저, 박, 저, 명지대학의 박주석 씨가 나한테 왜 그런 사진이 그 당시에 유행됐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내 작업실에 오라고, 그래서 아니, 작업실에 왔길래 내가 그때 그, 『퍼플러 포토그래피』에서 이제, 월드 사진 그 콘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59년인가 60년도에 특선한 사진이 말하자면 그 물가에서 어린 애들이 노는 실루엣 사진이야. {박: 아웃포커스 돼있지.} 내가 그거 딱 꺼내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이거 보고 우리도 말하자면 {박: 했다.} 응. 우리 작가들이 이거 훔내 낸 것이라고, 그랬더니 금방 자기가 알겠다고 이제. 그 이상규 선생님 사진도 말하자면 그 당시는 미국 잡지보고 그렇게 찍는 거죠 뭐 그냥.

최: 그럼 조천용 선생님께서는 그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대사진연구회 시절 {조: 네.} 그리고 또 이제 신문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또 개인적인 작업을 할 때 그게 [사진 경향이] 딱 분리가 되셨었나요? 그러니까 어짜피,

조: 잠깐. 다시 한 번요.

최: 예. 보도사진을 찍을 때는 {조: 네.} 어떤 기록성, 정보전달을 중요시 여기는 리얼리즘에 바탕을 두어야,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 그렇죠. 네.} 그런데 현대사진연구회 시절이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작업에, {조: 네.} 그러니까 신문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작업을 할



(우) Peter Neve(Denmark), 1960년  
《Popular photography 콘테스트》 최  
고상 수상작(『사안』 4호 52쪽에 수록)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하시는 대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콘테스트에 입상할 수 있는 모종의 혹은 예술적인 사진이라고 할까? 혹은 실험주의적 사진 그런 거를 하셨나요?

조: 그런 게 거의 가미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맨 밑바닥에 깔려서. {이: 자기도 모르게.} 글썄, 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최: 그러니까, 예. 사진 기자로서는 아무래도 리얼리즘이라든지 정보 전달적이고 액면 그대로 객관적인 사진을 찍고 {조: 네.} 현대사진연구회 쪽에서 어떤 출품작이라든지 그런 거, 월례회 때 이렇게 내놓을 사진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실험적이고 좀 예술적이고.

황: (사회자를 향해) 실험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때 말로 살롱사진.

최: 살롱사진 투의…….

황: 살롱 그러니까 회화적인 사진.

최: 예.

황: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말만 리얼리즘이라고 했는진 모르지만 리얼리즘 부르짖은 사람은 (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임응식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나요. {박: (웃음)}

최: 임응식 선생, 이명동<sup>44)</sup> 선생, {황: 이명동 선생님 하고.} 전몽각 선생님도, {황: 근데 전몽각 선생은…….} 예. 64년, 65년 되면요. 굉장히 과격한 리얼리스트가 되십니다.

황: 근데 전몽각 선생은 발표된 사진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

박: 전몽각 선생님은 그렇게 뭐, 주장하고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최: 그 이전에는, 아니요, (고개를 저으며) 글은 굉장히 과격하세요. 그 이전의, 이전의 사진은 제가 이문강 선생님<sup>45)</sup> 통해서 몇 개를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지금, 선생님 말하

44) 이명동(李明同, 1920). 동아일보사 사진기자로 재직하면서 1962년 한국사진협회의 창설 및 1963년 《동아사진콘테스트》의 창설을 주도했다. 『동아일보』, 『신동아』, 『파인힐』등 여러 일간지, 잡지에 사진 평론을 기고했으며, 1989년 『사진예술』을 창간, 발행했다.

45) 전몽각 선생의 부인이다.

전몽각, <벽>, 1963년 《제2회 현대사진연구회》 출품.



는 [것처럼] 굉장히 {황: (사회자를 향해) 리얼리즘이에요?} (황규태 선생을 바라보며) 살롱피쳐적이에요. {황: 리얼리즘? 그런데 64년, 65년 이후로는, 제가 그때가 그러면은, 그……독일<sup>46)</sup> 가시기 바로 직전인데. 글들은, 글로써는, 제가 네거티브는 다 검토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글로써는 굉장하게 완곡한, {황: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어요?} 완-강한 아주 리얼리스트 발언을 하십니다.

주: 근데 그게, 저, 그 『파퓰러 포토그래피』에 나오는 이제, 그, (한쪽 손목을 돌리며) 논조들 보고 그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이.

최: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 작업으로까지는……} 이런 것도 우리 해봤는데, 이걸 아니다, 뭐, 예. '이제 사진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기록성에서.' {주: 뭐, 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황: 그 주장이 임응식 선생님이라고. {최: 예, 맞습니다.} 응. 정점이.

주: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흔들며) 근데 임응식 선생님은 사실은, 그, 생활주의 사진 그러지 만은, 임응식 선생님 전체를 봐도 임 선생님 사진에 생활주의 리얼리즘은 하나도 없어. 그건 관계가 없어, 그냥 말로만 그랬을 뿐이지.

최: 예, 뭐, 그분의 이론하고는 약간 좀, 예, {주: 응.} 대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주: 응. 응.} 예, 저, 이영훈 선생님은 그러면 어떠한 작업을 주로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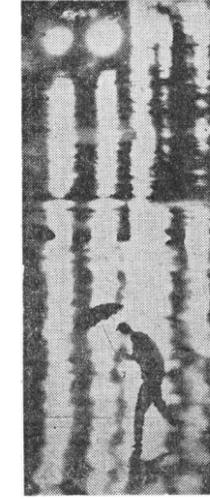
황: (이영훈 선생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주로 모던한 작품들 많이 하고…….

이: 그때 뭐 저도 어렸고 그러니까 역시 (웃으며) 이제, 그, 매력이 있었던 거는 지금 말하면 그건 뭐 살롱주의적 사진이라고 할까?

황: 맞아요.

주: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형록 선생이 저, 인천, 저, 갯벌에 가가지고 {조: 응.} 하이 콘트라스트 필름 갖고서는 말하자면 {이: 글썸, 거기에……} 그, 갯벌 찍어가지고, 이제, 어? 백(체록불가)

46) 전몽각의 1966-1967년 네덜란드 델프트(Delft) 공과대학 준석사과정 유학시기를 가리킨다. 사회자가 혼동했다.



이영훈, <밤거리>, 1965.

이: 글썸, 뭐 거기서 그런 거에 심, 심, 그런 거에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카메라, 사진 가지고 그런 것만 찍어서는 안 되는데, {주: 이야.} 진짜 좋은 사진다운 사진을 찍어야겠는데. 그것 참 (손짓을 하며) 막연하게, 근데 찍기는 어렵고, 또 어떤 걸 상징화해서 뭐 자기가 주관적으로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소위 리얼한 사진, 리얼한 사진도 진짜 거기에 에센스가 있는데, 그걸 함부로 어떻게 찍을 수도 없는, 없는 거고. 그렇다보니까 좀 약간 앵스트랙트(abstract) 한 면이 있으면서도 회화적인 [면이] 있는 것은 자기가 구상을 하고 어떻게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찍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좀 휩쓸렸던 것 같아요.

최: 그러니까 뭐 솔라리제이션(solarization)<sup>47)</sup>도 하시고 {주: 맞어.} 이중노출도 하시고,

이: 그런 것도 해 볼라고 좀, 솔라리제이션은 하지는 않았지만 '아, 이렇게 되니까 솔라리제이션 효과가 나타나는 구나' 시험 작은 해봤죠. 근데……그것도,

주: 우리 릴리프(relief)<sup>48)</sup> 참 많이 했거든. 우리, 그때.

이: (웃음)

최: 예, 이제 하이 콘트라스트(high contrast)로…….

주: 응. 그러니까 릴리프를, {이: (손짓을 하며) 응. 자기가 필름 현상을 하고, 자기가 인화 하니까.} 그, 뭐, 저, 네거-포지(nega-positi)<sup>49)</sup>로 찍어가지고 (한쪽 손등에 다른 손을 얹고) 샌드위치해가지고 {최: 예, 예.} 프린트 많이 하고 {박: (양 손바닥을 살짝 엇갈리게 붙이며) 빗겨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최: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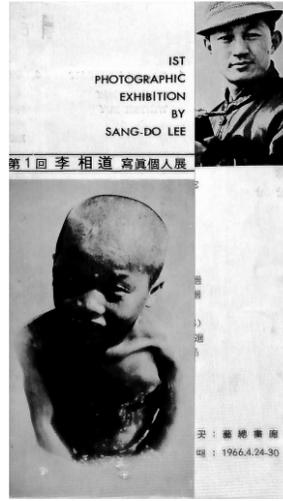
주: 네.

(잠시 휴식 후 녹화 재개)

47) 현상과정에서 감광재로 빛이 과하게 주어질 때 밝은 부분이 흰색을 띄는 게 아니라 흑색을 띄거나 어둡게 반전되어 보이는 현상.

48) 릴리프 포도는 부조의 효과를 낸 사진을 말한다.

49) 필름 음화상(negative image)을 양화상으로 인화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1966년 《제1회 이상도 사진개인전》  
팸플릿.

최: 주명덕 선생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5년에 《어린이 주제에 의한 주명덕 사진소품전》 그 다음에, 에-, 66년에, 66년에 《홀트씨 고아원 포토 에세이전》<sup>50)</sup> 하는데, 어, 이상도 아까 잠깐들 {주: 네.} 말씀하셨는데요. 이상도, 이상규 선생님 동생[인가요?]

주, 박: (고개를 저으며) 아니, 아니에요. 전혀! (전원 웃음)

최: 전혀 관계없지요? 이상도 선생님이 {황: (박영숙 선생을 향해 한쪽 손을 저으며) 소식 없지요?} 1966년 동일한 시간에 {주: 같이, 같이. 예, 예.} 거의 4월 24일에서 30일까지 어린이 사진, 에세이 형식……으로 이제 사진 개인전을 하시는데,<sup>51)</sup> 그 당시에 그때 65년, 66년 즈음해서 어린이 사진이 그렇게 많이 붐이 붙었다라고요. 숙미회도 그때 전시회 있었어요.<sup>52)</sup> 그게 어떠한, 뭐, 사회적인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조: (주명덕 선생을 향해) 그게 혹시 그거 아닐까? 내 생각에는, 글썄 확실치는 않은데……

박: 《홀트씨 고아원》아니야?

조: 맞아. 바로, 어. 주명덕 씨가 그, 저……. {황: (사회자에게) 찍기가 쉬워, 찍기가. 찍기가 쉬워가지고…….} {이: 그때 명덕 씨가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어, 《홀트[씨] 고아원》 그때 그 사진을 해서 그 애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영향 아닐까?

박: (주명덕 선생을 가리키며) 그게 주명덕 선생님 누님이 {조: 응.} {최: 예.} 홀트씨 양자회<sup>53)</sup>와 관계있는 일을 하셨었어요.

황: 아-.

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주명덕 선생님 개인 사정이시고, 이상도 선생님도 또 어린이 주제에 의한 뭐 그런 전시회를 하셨고, 그런 게 숙미회에서도 그 어린이 사진을 갖고 [전시회를 했어요.]

50) 주명덕 개인전 《홀트씨 고아원》(중앙공보관 화랑, 1966.4.24-29.)을 말한다.

51) 《제1회 이상도 개인전》, 1966.4.24-30, 예총화랑

52) 숙미회에서 어린이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1968년이다. 《제6회 숙미회 사진전·아기》, 1968.5.21-27, 예총화랑

53) 1956년 2월에 재단법인 홀트씨 양자회가 설립되었다. 1961년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현 일산복지타운인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했다.

박: 그게 다 그, 홀트 양자회를 하면서 홀트 양자회 뿐만 아니라, 저기, 아이들, 그런, 엄마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는, (손을 저으며) 홀트씨 말고, {조: 응.} 그거. (양팔을 벌리며) 그런 것들에 다 관심이…….

최: 에-, 전쟁고아 그런 문제들?

박: 예. 그런 것들과 {조: 음.} 맘먹고…….

이: (주명덕 선생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때, 그, 그때 고아원이 어디 있었다고요? 몇 번 같이 갔, 따라 갔었는데…….

주: 어, 저, 일산에. (동시에) {조: 지금 일산동 그 쪽에…….} {박: 불광동. 불광동?}

이: (손사래를 치며) 그땐 일산이 아니었어. {박: 불광동.} {조: (손사래를 치며) 아니, 글썄…….} 불광동에 {주: 불광동에 있었어.} 그 근처에…….

조: (이영훈 선생을 향해 한 손을 흔들며) 불광동은 아니고…….

주: 불광동에 있다가 일산으로 갔어.

조: 그렇지. 지금 일산 쪽으로 일로…….

이: 어, 거기 있을 때 몇 번 간 것 같애.

박: (조천용 선생에게 손을 흔들며) 그 다음에 정박아 애들을 또 찍었어요.<sup>54)</sup> {조: 음음.} (손으로 수를 헤아리며) 그래서 그, 저, 홀트 양자[회] 다음에 정박아, 그 다음에, 뭐, 무슨 어린이<sup>55)</sup> 뭐…….

주: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근데, 그, 그거 하고는, 다, {박: 다른 거고} 다른 거고. 이상도는, 그, {박: 이상도는 난 몰라.} 그, 이상도는, 전람회 둘이 같이 했는데, 그, (박영숙 선생을 바라보며) 내가 현대사진연구회 총무하기 전에 이상도가 총무했어. {박: 응, 그렇구나.} {조: 응.} 어, 그리고 개 졸업하면서, 그때 개가 이제, 저,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박: 들 어갔어?} 어, 졸업했는데, 하면서 그 전람회하고 개는 그냥 부산으로 내려갔어. {박: 내려 [갔어].} 그래 그게 첫 번째이자 마지막 전람회야. 개는. {박: 응, 맞아. 그 답에 아무 것도 [안했지]} 그게. 그게 옛날에 거, 부산에 보고 찍었던 거를 기적[기억]으로 자기가 말하자면, 말이, 그, 하지만은, 전람회 했던 거.

조: (주명덕 선생을 향해) 이상도가 우리하고 연배가 비슷하지? {주: 같애. 응, 응.} 그지? 같지?

박: 그런데 부산 아이야.

조: 응, 맞아. {박: 그때부터}

최: 조 선생님께 묻겠는데요. 어쨌든 『동아일보』 기자 생활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대사진연구회 활동도 계속 하셨고요.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께서도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그쪽에서 특선도 하셨고요. 또 65년에 《동아사진콘테스트》에서

54) 《제13회 숙미회 사진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III 정신박약아》, 1975.4.2-6, 신문회관. 당시 주명덕 선생이 지도했다.

55) 《제12회 숙미회 사진전: 어린이현장》, 1974.4.1-7, 국립공보관. 어린이 주제 전시가 《제13회 숙미회 사진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III 정신박약아》 보다 한 해 앞섰다. 구술자의 기억착오로 보인다.



조천용, <모정>, 1964년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특선작.

입선하셨고, 예, 여기 청록회(靑綠會)<sup>56)</sup>에도 1967년에 가입하시더라고요. 선생님ियो.

조: 네,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는 제가 『동아일보』 입사가 65년 2월 25일인데, 졸업일자하고 같아요. {최: 예.} 같은데, 어-, 그땐 아마 신문사의 일이 그때 많기도 하거니와 바빠가지고 거의 이쪽 일들을 제가 하지, 어, 간혹 나갔지만 그 것처럼 졸업 전보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나가질 못했습니다.

최: 그러니까 거의 예술사진하고는, 이제, 『동아일보』에 들어가신 후에는 거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 네, 한 10년 정도 아마 거의 어, 못 했을 거예요. {최: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어-그게, 맞아요. 그럴 겁니다. 칠십 한 오년까지. {최: 예.} 네.

최: 또 황 선생님께서는 65년에 도미하시는데 그래도 현대사진연구회에 계속 소식을 전해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황: 예. 뭐 연락이 있었는데} 이제 회원 소식란에 보려면 거기 나오시는데…….

황: 누구하고 주로 연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최: 혹시 선생님이 그, 현대사진연구회에, 그, 가르쳤던 싸롱아루스 선생님들하고 특별히 교분을 가지셨던 분 혹은 선생님 사진에 대해서 조언을 주셨던 분은 뭐 [누가 있었나요]?

황: 김행오 선생님 아니었을까. {최: 김행오 선생님. 네.} 어, 어. {최: 친구백……} 미국 갈 때도 이제 그 양반한테 많이…….

최: 미국 가셨을 때?

황: 아니, 가서는 물론 {최: 예, 예.} 매일 만나다시피 했고, {최: 예. 가시기 전에도} 가기 전에 여기서…….

최: 김행오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좀 사진에 관한 일종의 좀 멘토? 어떤 조언자 그런?

56) 1967년 2월 현대사진연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여해 발족한 사진단체이다. 지도위원은 임응식, 이명동, 정범태, 김행오, 초대 회장은 김선홍이다.

황: (고개를 끄덕이며) 예, 뭐 그런. 그렇죠.

최: 사실상 1967년이 현대사진연구회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박: 67년? 그……, 활동이 근본적으로 이제 쇠퇴기에 들어가는 시점인데, 그때 대거 현대사진연구회 회원들 분이 탈퇴를 하신 다음에 청록회라는 회를 만듭니다.

조: 근데 그게 혹시 그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청록회 그 이전에 67년에 아까 좀 사그러들었다고 제가 아까 얘길 했는데, {최: 예.} 그거는 이유가 아마 대략, 어, 우리 황규태 씨가 여기서 제일 연장자고 그리고 대개 다 거의 비슷한 연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졸업들하고 나서 직장들 갖고 그러면서 좀 뜸해 진 거, 뭐 고의적으로 어떤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박: 바빠[서]} 조금 뜸해진 것 아닐까요?

주: (손사래를 치며) 아니, 그거 아니야.

조: 그런가?

최: 아니요, 제가 그거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 음.} '청록회는 현대사진연구회 회원 중 사협에 입회하지 않은 전(全) 회원과 그동안 쉬고 있던 전(前) 회원들이 새로운 이념과 결의로써 권위 있는 {박: 맞는 말이야, 저게.} 지도위원을 모시고 새로운 클럽으로 청립회 [청록회]를 창립시켰다. 지도위원은 임응식, 이명동, 정범태, 김행오. 회장은 김선홍'<sup>57)</sup> 회원은 여기 선생님들 모두 다이십니다. '이영훈, 주명덕, 조천용, 박영숙' 예. 그래서 67년에…….

박: 어, 근데 4명밖에 없어요? 더 많지 않아요?

최: 예?

조: {박영숙 선생을 향해} 더 있었겠지.

박: 더 있죠?

최: 더, 더 많이 있죠. {조: 더 있었겠지.}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선생님들 모두가 이제 청록회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박, 조: 음.} 하셨는데, 더 좀 얘기를 하면은 이형록 선생님이 나중에, 후에 굉장히 거친 얘기를 쓰세요. {박: 허허. (웃음) 거친……} 그 청록회 그거 이야기인데 제가 그것 한 번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 {주명덕 선생에게 나지막이} 그때가 좀, 저기, 소외되는 때였나 보다. 그지?

황: {사회자에게} 그때는 이형록 선생님이 거기 리더였어요?

최: 아니요. {동시에} {박: 아니요, 배제됐지.} 이형록 선생님은 현대사진연구회에 그대로 남아계셨죠. 그런데 이제, {황: 아. 분리해서 나갔구만.} 예. 분리해서 67년에 나와 갖고 1971년도에 『현대사연』이라는 (A4용지를 들어 보이며) 이러한 아주 이제 조그만 회보지가 만들어졌는데<sup>58)</sup> 거기에서 「이중의 장벽」이라는 거를 이형록 선생님이 지도 고문님이시면서 거기에 쓰십니다. 1971년에, 71년에 67년을 회고하시면서 쓰신 글이 있습

57) 『포토그래피』, 1967년 3·4월호, 66쪽.

58) 1971년 창간된 현대사진연구회의 기관지 『현대사연(現代寫研)』을 말한다. B4 크기의 1장 양면에 기사를 실었다.



(좌) 『현대사연』 창간호, 1971년 2월 5일.  
 (우) 《제1회 청록회》 팸플릿, [1967],  
 6.6-12, 중앙공보관.(연도표기는 되어있지 않다.)

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67년에 겪었던 시련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다. {박: 오-} 그것은 몰지각한 과립치한 배은망덕한 반역행위로 {웃음} {박: 황: 하하(웃음)} 순진한 젊은 회원들을 감언이설로 선동하여 대거 탈퇴로’ 예. 이런 말을 씁니다.

황: (두 손을 좌우로 벌리며) 아, 그때 그렇게 갈라졌구나.

최: 예, 그때 청록회가 이제…….

주: (자신의 자료를 흔들며) 그 청록회가, {박: (주명덕 선생이 든 자료를 보며) 여기있어,}

저, 창, 창립한 거는 66년이예요.<sup>59)</sup>

최: 예?

주: 66년에 전람회를 했다고.

최: 예. 청록회가 66년이요?

주: 예. 66년에. {최: 예예} 전람회를 했는데, 그, 말하자면 그 양반이 이제, 그, 화를 내가지고 대거 그거 한거는 김선홍 선생이, 김선홍 씨나 이제 김행오 선생 같은 양반이 이제 청록회에 끼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박: 분노한거야?} 분노하게, 그랬어.

황: (주명덕 선생을 향해) 아, 김행오 선생님도 청록회 들어갔어요?

최: 예, 예. {박: 그치.}

주: 그럼요. 예. 근데, 그,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건 오로지 (자신을 가리키며) 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박: (웃음)}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의미로 그 청록{회}, 저, 그, 현대사진연구회를 분리시키게 만든 친구는 누구냐면 창환이 형제예요. 우리끼리 {박: (고개를 끄덕이며) 아아} 모였을 때, 그, 이제 효열이, 김효열도 싸롱아루스 갔다가 현대사진연구회로 미끌어 떨어지고, {박: 어,} 그 다음에 저, 이영훈 씨도 이제 {박: (이영훈 선생을 가리키

59) 청록회는 1967년 2월에 발족해 그해 6월에 첫 전시회를 개최했다. 구술자의 기억적으로 보인다.

며) 이영훈,} 싸롱아루스로 가고, 뭐 이제, {이: 그때 내가 싸롱아루스로 갔나?}<sup>60)</sup> 뭐, 예, 싸롱아루스 회원으로 돼 있어요. {박: 갔다가 여기로 내려왔대,} 네. 근데…….

최: 아니, 전공각 선생님이 싸롱아루스로 가시고요. {주: 네,} 김효열 선생님은 싸롱아루스로 갔다가 {주: 또, 또,} {박: 남고,} 다시 현대사연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주: 이제, 그게, 내 말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총무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한 회(會)에, 그러니까 우리가 싸롱아루스하고 현대사진연구회가 다른 회가 아니라 한 회가 되면은 그냥 우리 이형록 선생은 그, 우리 선생님이지 그게 뭐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게 말이 되냐, 그냥 한 회를 만들자, 그랬더니 창진이, 창환이 형제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 다 “니 말이 맞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가가지곤, 이형록 선생님한테 가가지고는 이제 ‘주명덕이라는 놈이 우리를 찍어낸다’고, {조: 음,} 그러가지고 이제 이형록 선생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형록 선생하고 나하고 둘이 어느 다방에서 둘이 담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24살인가 25살 때였을 텐데,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나 위에 총무 하던 양반이 누구누구 다 있는데, 총무만 되면은 이형록 선생님하고 다 사이가 나빠졌는데, 이제 내가 당신한테 미움을 살 차레다. {조: 음,} 그런데 총무를 욱할 게 아니라 이형록 선생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냐고 내가 따졌다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회 투표로 결정하자고, 그때 효열이나 니네 전부 다 (한 팔을 가로 저으며) 나보고 투표하는 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조: 음,} 그래서 현대사진연구회 총회 때 대부분이 다 투표를 안 했어. 그래서 거의 간, 이형록 선생, 그때 이형록 선생이 한국사협에서<sup>61)</sup> 힘이 없으니까 싸롱아루스, {최: 창협<sup>62)</sup>에서 그랬지요,} 응? {최: 창협이요,} 사협에서. (손사래를 치며) 창협이 아니라.

최: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줌, 그…….

주: 그 내 말, 아니, 내 말을 들어봐요. 사협에서, 그때 창협에 그게 있었는데, 이 현대사진[연구회] {박: 창협하고 청록회하고 비슷해요,} 이형록, 이형록 선생을 사협에서 가면은 부이사장 자리를 주고, 말하자면 사협에서 이형록 선생님을 대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결정이 됐어. 근데 그러면, 그랬는데, 현대사진연구회가 말하자면 그 건으로 해서 딱 쪼개지니까 이형록 선생한테 남은 사람은 뭐 아까 말하자면 정철용 선생, 뭐 그런 이제 그, 직장에 있는 그런 옛날, 그, {박: 옛날 스타일의 사람들,} 사람들만 이형록 선생님[한테]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뭐라면, 다, 그러니까 {박: 빠져나왔지,} 김행오, 전공각부터 시작해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청록회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이명동 선생님 같은 건 사실은 그냥 저희하고 관계없어요. 임응식 선생님도 관계없고, 그냥, 그거고. 우리는 말하자면 저, 전공각, 김행오 그리고 저, 김선홍 선생이라고 여기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다 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청록회를 만들었다고요. 그 단체는.

60) 이영훈 선생이 싸롱아루스에 이름을 올린것은 1965년 2월 『사단』 6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 현 한국사진작가협회.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이어 문화예술단체 해산령이 내려졌으며, 각 예술단체의 통합을 증용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예술 단체들은 단일 협회로 통합되었는데, 사진 분야의 경우 12월 영입사진가의 모임인 전국사진가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예총 산하 한국사진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되었다.

62) 한국창작사진협회. 문화예술단체 해산령이 1964년 해제되자 임응식이 전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결성했다. 1971년 한국창작사진협회는 한국사진협회에 통합되었다.

최: 그러면은 그때 (웃음) {주: 그림} ‘순진한 젊은 회원들을 감언이설로 선동하여 대거 탈회로 자신의 허망한 욕망을 달성하려 했던 처사였고’ {황, 이: (웃음)} [이거] 읽어야 할 때, 그 ‘몰지각한, 파렴치한’이 [주명덕] 선생님일 수는 없잖아요?<sup>63)</sup>

박: 이형록 선생님이 약간 왜, 사람들이 이쪽으로 진보하는데 자기는 자꾸 쳐지는 느낌에 약간, 마음이 늘 서운했던 게 있나 보네요.

황: 서운하지, {주: 근데, 그, 따……} 그, 뭐, 자기가 리드하던 그, 그룹인데 거 깨치고 자꾸 나가고.

최: 근데 이제 그쪽에 머물렀던 분, 현대사연에 남으시는 분은 이상규 선생님이 남으십니다.

주: 이상규 선생님은 남았어도 {박: 나오지도 않았어} 그 양반은 그걸로 끝났어요. 자기는 참여, 우리한테 참여 안하고, 자기는 사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최: 그럼 현대사연에서는, 그, 나중예요. {주: 아} 청록회 이후에는 회장까지 하세요.

주: 아니, 이름은 그냥 갖다 붙였지만 그 양반은 그거 안 했어요.

박: 나이나 여러 가지 인품으로 회장이 됐지, {주: 응. 응.} 참여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런 얘기에요.

최: 그래서 저로써는 {주: 응. 응.} 어쨌든 뭐 더군다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몰지각한 파렴치한’이라는 분이 {황, 이, 조: (웃음)} 지명하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응식 선생님을 지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주: 근데 그건 임응식 선생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박: (웃음)

최: 왜냐면은 청록회 회원이라는 게 다 창협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주: 그림} {박: 예.} 창협의 멤버였던 현대사연의 회원 분들이 나와 갖고, 당연히 그때 이형록 선생님은 지도위원이셨고, 위원장이 이제 임응식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인간적인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황: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갈등도 있었는데, {박: (주명덕 선생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두 분한테 뭐가 있었나보다. 이명, 이명, 임응식 하고 이형록.} 제가 보기에는 계속 『사안』이라는 잡지를 읽어보면은 이형록 선생님하고 임응식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황: 어, 그랬어요. 어, 그랬어.} 예. 리얼리즘과 대립을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박: 그건 있었던 거 같애.} 그래서 임응식 선생님이, 더군다나 이명동 선생님이 끼어있고, 그래갖고 좀 리얼리즘에 동조하는 젊은이들, 젊은, 예. 선생님들을 끌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 (손사래를 치며) 아니, 아니예요. 그건 절대로 아니고, 그, 그 청록회가 만들어진 거는 정말 현대사진연구회가 깨진 건 (본인을 가리키며) 정말 나 때문이에요.

최: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은 {주: 네.} 이형록 선생님의 독단적인 어떤 운영? 뭐 그런 거에 대

63) 이형록은 박주석과의 대화에서 “현대 사진연구회도 도중에 좀 이탈 분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장본인이 김, 김선홍이란 사람입니다.”라고 솔직한 바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편, 『(2003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21, 이형록』, 박주석 채록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125쪽.

한 반발로써? {주: 네네.} 젊은 분들…….

박: 독단적이라기보다는요. 약간 전부들 진보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약간 끌어내리려는 그런.

주: 그니까, 이,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진 탄 얘기지만, {박: (웃음)} 나중에, (황규태 선생을 향해) 황, 우리 황 선생님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그때 문선호 씨가 이형록 선생님 뭐 도와서 전람회 해준다고, 나보고 도와주라고 그런 적 기억나죠?

황: 모르겠어.

박: 미국에서 와서.

주: 와가지고, 이형록 선생님 도와주라고, 왜 안 도와주냐고 나한테.

황: (주명덕 선생을 바라보며) 내가 그랬나?

주: 그랬, 그랬다고요. 그때 내가 황 선생한테 그랬어요. “이형록 선생이 사진작가냐?”고 그랬어요. 내가.

박: (웃음)

황: (웃음) 아, 몰라, 기억 안 나. 전혀.

주: 어. 난 이형록 선생을 사진작가로 인정할 수 없고, 그냥 사진을, 마지막에는 사진을 갖고 말하자면, 하여튼 내가 아주 악담을 했어요. 근데 문선호 선생하고 이형록 선생하고 그 후에 나한테 두 번, 세 번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 도와주면 되냐” 그래서 “그럼 프린트 해 드리겠다.” 그래서 이형록 선생님 프린트를 내가 다 해 드린 적 있어요.

황: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아, 그건 기억이 나. 응. 응. 그 기억.

주: 기억나지요? 네.

황: 아, 그런 도와주는 거?

주: 그럼. 그럼.

박: 그거예요. 말하자면은 {황: 어어. 그건 기억이 나.} {주: 응.}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자기, 자기 안주, 디벨롭(development) 못 되고 있는 (한손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자기를 닦아지는 않고…….

주: (손짓을 하며) 내가 이형록 선생님 한 번 더 말하자면 내가, 저, 내가 사전에 그거로 상의 해 본 적 없다고 내가.

최: 좀, 이영훈 선생님하고 조 선생님도 청록회에 가입하셨는데, 그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주: (손으로 조천용 쪽을 가리키며) 뭐, 저, 이}

조: 그때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최: 이영훈 선생님도 기억 전혀 안 나세요?

이: 나는 그때 군대에 있을 때라.

주: 그럼.

최: 67년인데요?

이: 예.

주: 그건, 저기, 여기에 조천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저, 여[기] 해 봤으니까 해' 그러니까 했을 거야. 아마. {조: 응.} 근데, {박: 그냥 이름은 올라가 있는 거고.} 내가 그거 할 때, {이: 그때 청록회에 대해서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응. 그거 하지 말자던 기억은 나지? (이후에 주명덕 선생과 조천용 선생은 박영숙 선생과 황규태 선생은 이영훈 선생과 각각 대화를 이어간다. 여기서는 두 그룹간의 동시간 대화를 구분했다.)

조: (주명덕 선생과 서로 바라보며) 근데, 저게, 그건 그렇고 말이야. {주: 어어.} 이형록 선생이 아까 뭐 얘기 했다는 거. 그게 이런 거 아닐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지도를 많이 해 오셨거든.

주: 그렇지.

조: 근데 우리가 많이 컸단 말이야. {박: 컸지.} 그리고 나서 탄 데로 방향을 틀려고 그러니까 이 양반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걸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거기에 대한 반감 내지 서운함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박: (손짓을 하며) 그거는 반감보다는 {주: 뭐, 자기를} 자기를 떠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아.

조: (손짓을 하며) 글썸.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지. {박: 응, 응. 서운함이지.} 그런데 이형록 선생이 그거를 우릴 계속 뒷받침해 주고 그 양반도 우리하고 같이 저걸 해 나갔으면 좋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대개 그거를 자기 틀에서 빨리 벗어나질 못 하거든.

(조천용 선생, 주명덕 선생, 박영숙 선생의 대화와 동시에)

황: (이영훈 선생을 바라보며) 근데, 현대가 무너지고, 다시 또 현대가 됐다는 걸로 내가 미국에서 들었거든요?

이: 현대…….

황: 청록회 난 못 듣고.

이: 글썸.

황: (손짓을 하며) 현대를, 현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현대 멤버들이 나와서 다시 현대를 했다고 {이: 글썸, 난} 소식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 그 답에 사진을,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또 뭐, 학교 다닌다고 또 더 다녔어. 내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학생 때, 열렬한 친구들이 열심히 하다가 {황: 그렇지.} 학교를 졸업하고 {황: 그렇지. 그럼. 그럼.}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현대사진연구회] 활

동이 위축된 거지. {황: 그렇지.}

(두 그룹간의 대화가 끝나고 이어서)

박: 그걸 보면요. {조: 어.} 어떠했나면 선생님은 점점 점점 이렇게 그 뭐랄까 모습도 그랬지만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처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조: (박영숙 선생의 말을 멈추며) 아니, 그게 처졌다고 얘길 하지 말고, {박: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잠깐 얘기해 봐. 처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박: 가만히 있고 (웃음)} 우리는 계속해서 많이 커 나갔는데 {박: 우리는 막 커 나가는데.} 이형록 선생은 우리를 [가], 크는 만큼,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발전하시질 못하고 그 틀에서 {박: (손짓을 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황: (손짓을 하며) 그러니까 선생님, 한번 선생님이면 끝까지 선생님 해야지, 왜들 차고 나가?

조: (황규태 선생을 향해 손짓을 하며) 그래, 그래. 바로 그런 거야. 어. 어.

박: (웃으며) 그거지.

황: 그 양반이, 생각해 봐.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조: 응응.} 내가 나가서 박사가 됐다 그 래. {박, 조: 음음.} 그렇다고 그거 국민학교 선생님 {박: 무시해?}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할 거예요? 그건, 뛰쳐나가서 {조: 응. 그게 이제 거기서 서운함 같은 게 아마 그런 게 한 게 잘못된 거야.

박: 그런 거지.

조: 어, 되지 않았나. {황: 그,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로, 옛날 선생님이로 두고.}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박: 근데 이제 국민학교 선생은 그렇게, 졸업 후에도 '선생님' 하고 찾아가지만 {조: 음.} 지금 이거는 하나의 그, 뭐랄까, 흐름을, 흐름을 이끄는 상황이잖아요.

최: 예, 근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 이제 선생님들은 그러한 어떤 청록회의 창립 그리고 현대사연의 분열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어떤 갈등, 예, 뭐라고 해야 하나, 서운함 그런 걸로 말씀하시는데. 또 저처럼 이제 문헌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지가 않은 게요. 어쨌든 임응식 선생님은 리얼리즘의 주창자였고, 더군다나 이명동 선생까지 들어오시고, {주: 아니 근데 아까} 이상규 선생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실험주의적인 사진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분이고, 또 이형록 선생도 그것에 지지를 했던 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박: 근데 그건 정말 [사회자] 선생님이} 어떤 사진의 경향에 의해서 갈라진 게 아닌가.

박: 그거 아니에요. 이상규 선생님은 이미 발을 끊고 안 있고, 이름만 그냥 남아 있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 아니, 그건 관계없고. 하여튼 {박: 아니,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어, 글썸 그건 그렇고. 그건

뭐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해서 가든지 관계없고. 하여튼, 그, 현대사진연구회가 깨진 거는 말하자면, {박: (웃으며) 주 선생님이 본인이, 자기가;} 본, [원인은] 나예요 그거는.

최: 그러면 어쨌든 현대사진연구회, 청록회가 생긴 이후에 현대사진연구회는 이형록 선생님이 고문이셨고요. 그리고 이상규 선생님이 회장, {주: 어어;} 그리고 그 다음에 회장을 맡는 분이 이창환 선생님이세요.

주: 거, 이창환이 글씨 형체가 다 그랬죠. 예.

최: 예, 회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철용, {주: 그래. 예예;} 아까 말씀하신, 상업은행의 정철용 선생님 그리고 왕상혁 씨라는 분이 주요 회원으로 해갖고 {주: 아, 예;} {황: 아, 맞아;} {박: 나중에 들어왔지;} 1972년까지 하는데…….

조: (사회자에게) 왕상혁이요?

최: 예예. {주: 어, 있어;} {황: 왕상혁. 혁;} {박: 혁. 왕상혁;} 그런데 왕상혁 씨도 굉장히 실험적인 사진을 과격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 어. 그러다 없어져버리고 말았어.

최: 예.

조: 왕상혁 씨가 『서울신문』에 있던 왕상혁 씨 아니고 {박: 어?} 판 사람인가 보다. 『서울신문』에 있던 왕상혁이가 아니고. {박: (조천용 선생에게 손사래를 치며) 『서울신문』에 있던 사람 아니야;} {주: 아냐. 그 사람 은행에 있던 사람이야.<sup>64</sup>} {박영숙 선생에게} 어, 판 사람. 판 사람이야? 응.

최: 그러니까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리얼리즘 사진에 동조하지 않는, 좀 실험주의적이란지, 주관주의적 사진, 혹은 뉴비전 쪽을 추구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떠한 사진적 경향의 어떤 대답이, 그런 인간적인 대답과 겹쳐 갖구 이렇게 회가 갈라진 게 아닌가.

황: 그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죠. 두 가지가.

주: 아니야. 아니야. 그 왕상혁 씨는…….

최: (주명덕 선생을 향해) 그런데, 저, 주 선생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냥 어떠한 인간적인 문제,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어쨌든 청록회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 어떠한 기억, 문맥 그런 게 좀 기억하실 게 있지 않았나 했더니, 전혀 없으시네요.

주: 그 왕상혁 씨는 그 후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모임하고는. 응.

최: 예. 그러면 저, 좀, 뭐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시는 이상규 선생님의 좀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바…….

박: 전혀 활동 없었어요.

최: 어쨌든 상업은행 조사부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성업공사, 그러니까 상업은행의

64) 왕상혁은 1965년 현대사진연구회에 입회했다. 한일은행에서 근무했다.

{주: 예;} 이제 산하기관인가요?<sup>65</sup> {주: 산하단체죠. 예;} 예. 거기에 차장으로 계셨다가 그 이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72년에 보면은 회장으로, 예, 현대사진연구회 회장으로 직함을 올리시고는 좀…….

주: (손사래를 치며) 사진 한 번도 발표한 적도 없고 그럴 거예요.

최: 그 이후로는요?

주: 예.

박: 우리들한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최: 그 이후에 뭘 하셨는지도 모르지요?

황: (고개를 숙여 메모하며) 그때 얘기로는 와이프가 그렇게 그냥 그랬대, 집에서.

최: 예?

황: 와이프가

최: 예.

황: 못 나가게 막 그랬대.

최: 아, {박: 아-;} 이제 사진 활동 좀 그만하시라고요?

황: 응, 내가, 그, 내가 들은 거로는 그래.

주: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옛날에, 그, 저, 예술의전당 해가지고 저 뭐 《한국 사진의 흐름전》<sup>66</sup> 인가 뭔가 할 때, {최: 예;} 그때 제가 뭐 할 때냐면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끼어가지고 그, 김승곤<sup>67</sup> 선생님 뭐 할 때 내가, 그, 말으면서, 거기 이제 큐레이터한테 이상규 선생님 찾아가서 무슨 사진 달라고 그러라고, 이형록, 저, 김행오 선생한테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무슨 필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전부 다 그 옛날 거 받았거든요. 그게 아마 끝일 거예요. 이형록…….

최: 그럼 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형록 선생님하고 임응식 선생님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박: 안 친한 건 사실일 거예요.

최: 아, 그분들은…….

황: 라이벌, 라이벌. {이: 그렇지, 그렇지. 친하진 않았지;} 거의 라이벌이었지. 참에. 현대 할 [때]. 어, 현대…….

최: 동향이신 건 아시죠? 강릉. 강릉분이시라는 건 아시죠? {주: 아니, 저……;} 강릉사우회<sup>68</sup> 활동을 같이 하셨죠.

주: 예. 같이, 거기, 예, 예. 임응식은 부산이고.

최: 그리고 임응식 선생님이 5살이 연상이세요. {박: 누가?} 그리고 ‘강릉사우회’에서 처음으로 같이 사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박: 아;} {주: 그럼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안 좋

65) 사회자가 상업은행을 상업은행으로 혼동했다.

66) 《한국 사진의 흐름전》, 1994.1.18-2.10,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67) 김승곤(1940-). 사진평론가. 국립순천대학교 석좌교수. 서울사진축제 및 동강사진마을 초대운영위원장과 서울사진대전 추진위원장을 지냈다.

68) 강릉사우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임응식과 이형록이 주축이 되어 활동했던 강릉의 아마추어 사진단체이다.

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형록 선생님의 콤플렉스. {이: 그런 게 있었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임응식 씨는 {최: 예} 학벌로 봐서 무슨 미술대학교 졸업하셨죠? 그것도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죠? {박: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셨어요. 서울 미대에서} 유학을 하셨죠?<sup>69)</sup> 그리고 와서 한국의 참전 {최: 예. 한국전쟁……} 사진기자로 6.25 때 하셨죠? 또 그 후에 업적을 보려면 이제, 그때 뭐야, 《인간가족전》<sup>70)</sup>을 유치하는데 {최: 예} {박: 맞아} 그분이 앞장섰지요? {박: 주관했지} 대학교 출강도 했죠? {박: 패밀리 어브 맨(family of man)}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 지명도가 이미 임응식 씨는 상당히 사계에서 아주 {황: 그, 그 말은, 저, 누구 얘길 들어야 돼?} {박: 이경성 선생님} 상당히 지위가 있었고…….

황: 응?

박: 이경성 선생님.

황: 이경성 씨도 그렇고, 그, 이명동 선생도 얘기도 들어보면 돼요. 이명동 선생은 (손사래를 치며) 그것 절대로 아니라 그런다고. 임응식 선생이 그거, 《인간가족전》 초정하지 않았다고 아주 그냥 그런다고 그 양반은.

이: 아니, 근데 그건, 그 사실 관계는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알려지기를 그렇게 알려져서…….

황: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고 다닌다고 이제…….

최: 지명도와 활동의 반경에 있어서는 {박, 이: 그렇죠} 이형록 선생님이 이제 비견할 바가 되지 못 했던 거죠. {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좀 소외감, 어떤 자괴감 같이 것도 있을 거고…….

박: 자꾸 자기 옆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이: 예, 그런 건 당연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사진연구회 전시회를 할 때나 {최: 예} 작품 발표할 때, 그, 가끔 임응식 씨를 초빙을 해서 {최: 예. 초빙을 항상 하셨죠} 그분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최: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형록 씨는 같은 원로인데, 뭐 이렇게, 그거, 감정을 뚜렷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좋아하는, {황: 기분은 좋지가 않을 테지}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지.

최: 아니요. 그래도 약간의 감정적인, 감정 찌꺼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예, 그런 건 우리로서도 처음 봤을 때 조금 느꼈[어요], 느끼고 있었어요.

주: 근데 이형록 선생은, 그니까 싸롱아루스 전람회 이후에, 이후에 자기 사진 발표한 사진이라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최: 예.

69) 임응식은 일본 도시마체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릉우편국과 부산지방체신국에서 근무했다. 이후 도쿄 일본물리탐광주식회사에서 근무했다. 구술자의 기억착오로 보인다. 임응식의 연보는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편, 『사진+문화』 vol. 4, 2011년 8월호를 참고할 것.

70) 《인간 가족전(The Family of Man)》. 1955년 미국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사진전. 에드워드 슈타이켈의 기획으로 전세계 273명의 503점이 전시되었으며 40여 개국에 순회 전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4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경복궁미술관에서 전시되었으며, 미 공보처 자료에 의하면 40만 명 이상이 관람했다.

이: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작품 면에서도 그렇고.

최: 예. 줌, 김행오 선생님에 대해서 줌,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면 줌 말씀해 주십시오.

박: 우리들의 선생이죠.

주: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최: 근데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 하셨나요?

주: 어. 그 양반이 저, 그 당시에 서울공대 조선, 조선과 출신이야.

최: 화공과 출신 아니었습니까?

주: 아니, 조선.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었나 하면 해운공사에 계셨어요.<sup>71)</sup> {박: 응} {최: 처음예요?} 네. 조선공사? 조선공사? {박: 조선공사겠다} 어. 조선공사에 있었어요. {박: 응} 조선공사에 있다가, 그 동양방송 생겼을 때 동양방송에 말하자면 영화부장으로 오셨어. {최: 예예} 그래가지고 외화를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외화 틀어줄 때 그, 셀렉트(select) 하는 {박: (나지막이) 그러니까 저기……} 그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중앙일보』 있을 때, 나는, 내 방이 10층에 있었고, 김행오 선생님 방은 8층에 있었는데, {박: 7층, 7층인가 8층……} 7층? {박: 응} 책 나오면은 이제 갖다 주면은 김행오 선생이, 나, 그때 그랬던 것이 뭐냐면, 나보고 이제, 저, 김기찬<sup>72)</sup> 불러가지고, 김기찬 사진보고 가라고, 이 친구 사진 좋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제, 줌 도와주라고 그러고, {조: 응} 거 골목사진 찍을 때. {조: 응} 그러면 이제 거,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 뭐 하여튼 우리들 시대의 말하자면, 그, 사진하는 선배로서 가장 젠틀한 분이었으니까. 어.

박: 그, (손으로 잡지 형태를 그리며) 『파플러 포토그래피』나 뭐 잡지에, 이게, 사실 같은 컷, 그거를 선생님이 늘 우리들한테 거기 있는 내용을 {최: 예. 얘기해주시고} 강의해 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로 보면서 사진의 흐름이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쏘리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쏘린 거고.

최: 황 선생님, 혹시 미국에서 봤을 때 김행오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뭐, 그때도 사진 활동을 계속하셨는지요?

황: (손짓을 하며) 아니요, 사진 활동은 안 하시고, 여기서 편성국장으로 계시다가 거기 미주 『중앙일보』 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박: (주명덕 선생에게 나지막이) TBC가 아닌가? TBC 아니고?} {주: (박영숙 선생에게 나지막이) TBC 했어. 거 『중앙일보』랑 같은 거니까} 쪽 다시 또 접촉을 하다가, 그, 이 본사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 사장에서 물러났어요. 그러고서 내가 이제 『동아일보』를 할 때 『동아일보』 오셔서 절 도와주셨죠.

최: 『중앙일보』, 그, 지사장 그만두시고…….

71) 월간 『해양한국』 456호, 2011년 9월호에 실린 「참립자 삼주 윤상승 자서전(6) 전쟁, 그리고 한국해양대학과 인연」에 따르면, 김행오는 1952년 해운공사의 통역 겸 경리로 재직했다. 출처: <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dxno=8697>, 2016년 8월 10일 접속.

72) 김기찬(金基贊, 1938-2005). 동양방송국(TBC TV) 영상제작부장과 한국방송공사(KBS TV) 영상 제작국 제작1부장을 역임했다. 1968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 특정 지역의 일상과 풍경을 촬영한 《골목 안 풍경》이 대표작이다. 한국사진가협회 회원, 동아일보사 사진동우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제3회 이명동사진상》(2002)과 《제3회 동강사진문화상》(2004)을 수상하고, 육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황: 예, 『동아일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함은 뭐 부사장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이제 전반적인 『동아일보』 관리해 주시고, 그러다가 내가 『동아일보』에서 이제, 내가 8년 했거든요? 근데 8년 하다가 한국 내 오면서 그 『동아일보』를 이제 끝냈죠. 그때까지 이제 같이 있었어요.

박: (나지막이) 같이 있었구나.

주: 그, 그럼.

최: 지금 작고하셨나요?

황: 어, 돌아가셨다고, 지난번에 {주: 어, 어. 예예.} 내가 전화해 봤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러 [더라고].

최: 언제 돌아가셨나요?

주: (고개를 끄덕이며) 제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에 얘기 들은 게, 아, 김행오 선생이 치매가 왔다고 {박: 응.}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 어.

이: 그분이 그 영상미학에 대해서…….

최: 어쨌든 <낙동강>이라는 게, 뭐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도 수상도 하시고<sup>73)</sup> {주: 수상도 하고. 그렇죠. 예.} {박: 응, 응.} {이: 그, 영상미학에…….} 그랬더라고요.

황: 우리나라에서 최초였을 거야.

최: 예.

이: 영화 연출, 뭐, 영화 촬영, 거기서부터 이 스틸 사진에 대한 보는 각도가, 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면이 있구나.

최: 그럼 그분도 거의 사진이나 그쪽에선 거의 독학을 하신 분이네요?

주: 어. {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 그 다음에 조선공사 있다가 국립영화제작소<sup>74)</sup>로 갔구나. 김행오 선생이.

이: 국립[영화제작소], 그때 <낙동강> 찍은 거죠.

주: 그래. <낙동강>을 찍은 거야. 영화제에서…….

최: 예. 58년에 공보부 국립영화제작소에 {주: 예, 예.} 입사했고 영화 <낙동강>을 찍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 ‘한강’이 아니라 ‘낙동강’이죠?

최: 예, <낙동강>입니다. {주:<낙동강>이에요. 예.} 동양방송에서 이제 편성부장 하시고.

황: (조친용 선생을 향해) 어, 한강 아니야? 한강 줄기를 찍다가……응? 낙동강 맞아?

조: <낙동강> 맞을 거야. <낙동강>이야. 맞아.

주: <낙동강>이었어요.

최: 예.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입니다. 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 마지막인데,

73) 국립영화제작소 제작, 김행오 감독의 <낙동강(Nackdong River)>은 1964년도 멜보른국제영화제(Melbourne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상영되었고 제2회 청룡영화상 비(非)극영화 작품상을 수상했다.

74) 국립영화제작소는 국민계몽과 국가홍보라는 목적 하에 설립된 국가홍보기관으로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배포를 관장한 최초의 영화제작소이다. 1948년 공보처 공보국 영화과로 시작해 1961년 공보부 소속의 국립영화제작소로 발족하였다. 1960년부터는 문화영화와 기록영화 분야에서 국제영화제에 참가하여 40회 이상 수상하였다. 이후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에서 영상홍보원을 거쳐 한국정책방송원으로 변경되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현대사진연구회는 선생님들에게 무엇이었는데? (웃음)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오늘 좌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인큐베이터(incubator)죠. 뭐, 인큐베이터.

최: 예?

황: 인큐베이터였다고.

최: 선생님에게서는 어떤, 뭐, 사진작가로서의 인큐베이터였다.

황: 어어. (구술자 전원을 가리키며) 다, 우리. 뭐, 거기서 자란 거라고 {박: 아, 확실히 자랐죠} 거기서 젓 먹고, 거기서 자라고 다 그랬어.

박: 그거보다 291<sup>75)</sup>? 또는 그, 『카메라 워크(Camera Work)』<sup>76)</sup>? {최: 예, 예.} 『카메라 노트(Camera Notes)』<sup>77)</sup>? {최: 예.} 그것도 별것 아닌 우리들이 했던 행동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최: 예.} 우리들보다 뭐 그렇게 조금 더 문화가 더 이렇게 진보했었기 때문에 그랬었지만, 우리도, 그, 난 그런 생각 늘 하고 있었어요.

주: 아니, 저, 『사안』 {박: 만들 때.} 편집하고 만들고 뭐, 권명광이랑 같이 밤새도록 표지 뭐 (손으로 롤러 바르는 흉내를 내며) 하면서 만들고, 효열이랑 매일 저 명동에서 얘기할 때인데, 그런, 그, 하겠다는 용기에 비해서 너무 몰랐[지]……우리가. 내가 너무 몰랐던 거지 그때는. 근데 용기가 백배해가지구, 그래 지금 와서 보면 참…….

박: 가상스럽지.

주: 어?

박: 가상스러워요. 진.

황: (손사래를 치며) 외부 정보가 너무 어두웠어요. 어. 외부 정보가. 겨우 잘 한다는 거가 이제 얘기했던 뭐. {박: 우리가…….} 사진 잡지 통해서 좀 알고 그런 거였지.

박: 잡지를 정규로 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웃음) {황: 그림.} (두 팔을 넓게 벌렸다 모으며)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 주워서 갖다 보는 거니까…….

황: PX에서 흘러나온 잡지들 보고…….

최: 예. 유일하게 이영훈 선생님만 이제 사진가의 길을 걷지 않게 되셨는데요. (웃음) 한번 선생님의 현대사진연구회 {황: (이영훈 선생의 손목을 잡으며) 사진이 너무 좋았는데 끝까지 해야 한다고.} 이후의 좀 선생님의 삶, 그것 좀…….

이: 글썽 그게, 그 열정이 어떻게, 그, 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또 뭐 군대 갔다 와서 또 학교를 다 못 마쳤다고 학교를 더 다니고, 그 바람에 그게 어떻게 슬쩍 사라져가지고서는 취직을 하게 되니까, 거길 또 몰두하다 보니까…….

최: 취직은 어디로 하시게 되었어요? 첫 직장이.

이: 그게, 회사에. {최: 예.} 그때 이제 첫 직장은 (웃음) 저기 지엠(GM), 그 자동차 회사를 들

75) 미국출신 사진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 1864-1946)가 1905년 뉴욕에 연 Photo Secession Gallery를 말한다. 당시 스티글리츠가 주도한 사진분리파(Photo-Secession Group)를 중심으로 한 예술작품을 전시하였고 『Camera Work』지에 소개되면서 호평을 받았다. 나중에는 주소지 이름인 291로 더 알려지게 되었다.

76)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사진분리파(Photo-Secession Group)의 사진예술 개념을 지지하기 위해 1903년 창간한 사진 전문 계간잡지이다. 1917년까지 총 50회가 발간되었다.

77) 1896년 설립된 미국의 뉴욕카메라클럽의 기관지이다.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편집자로 활동했다. 1897년부터 1903년까지 간행되었다.

어가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열정이 슬며시 이제 사라, 사라지고, 옛날 친구들도 만나 볼 기회도 없어지고, {최: 예,} 늘 생각에 그, 싸롱아루스 선생님들이 늘, 그, 교재도 많지도 않고, 사진 이론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확고부동한 뭐가 우리나라에 설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교육기관도 우리나라에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했던 게 고맙고, 상당히 그, '우리한테 주는 뭐가 참 많았었구나.' 그러면서 우선 생각은, 내가 사진을 그때 못하고 있더라도 그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는 그래도 때가 되면 좀 하고 지냈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들도 다 못 만나게 되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 또 내가 그럼 과연, 좀, 그럼, 사진에 대한, 사진이란 게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예능적인 끼가 있는 성격이라면 다 뿌리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 학생 때 그렇게 좋아한 걸 내가 왜 (손뼉을 치며) 집어치울 수가 있느냐, 이려고 달려들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좀 소심적인 뭐가 있지 않았느냐, 인생을 지나고 오면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조금 섭섭하게, 어, 내가 나다운 뭐가 별로 (웃으며) 없는 좀 덤덤한 인간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 (이영훈 선생의 손목을 잡으며) 돈 많이 벌어냈으면 됐어요.

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부터는 사진 작업은 그냥 완전히 접으신 상태…….

이: 그 뭐 직장생활 쪽 하게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하면서도, 어, 언젠가는 어디 가서 그, 사진을 하려고, 직장에 있으면서도, 어딜 가서, 독일에 갔는데, 그 로라이플렉스 싱글렌즈 리플렉스 카메라가 {조: 응,} 있더라고. {황: 66. 그뻘 66년이네,} 어. {황: 66년에 나왔어요. 그게. 그게 참 좋은 카메라이지.} (잠시 머뭇거리며) 응. 그게, 내가, 그걸 산……그 연도가 70…… {황: 66년이에요 그게,} 아니야. {황: 나온 해가,} 아. 나온 해가. 그런데 그걸 3개를 샀어. {황: (웃으며) 아이고,} 어. 82년도에 샀는데, 그거 하나 전에 나온 거, 그 제일 먼저 나온 게 나아. 이게 다 카메라가 이상하더라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황: 어,} 렌즈는 좋은데.

조: 새 걸 샀는데?

이: 새건데. {조: 음,} 그러고 나오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그건 독일제로 나왔고, 두 번째로 나온 거는 메이드 인 제펜으로 나왔고, {황: 오, 그랬어요?} 세 번째 나온 것도 메이드 인, 아, 세 번째 나온 거는 메이드 인 싱가포르로 나왔어. {황: 어-} 렌즈는 플라나 렌즈하고 디스타곤이라는 광각하고 {황: 어, 어,} 또 뭐가 있는데, 고 렌즈는 다 좋아. 아주 성능이 좋아. 그래서 그 한 세트를 가지면서 '아, 사진을 찍어야지, 찍어야지' (웃으며) 하면서 가끔 이제, 그래도 뭐 어디 놀러 나갈 때나 가지고 나가지, 평상시에 그걸,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 사진을 찍으려면. 어쨌든 간에. 약은[작은] 카메라를 {황: 그게 어느 나라 계열이었어요?} 여기다 끼, 끼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 그러면은 내가 아마추어로서도 뭐 그

래도 사진 뭐 좀 찍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내] 멋대로 안 되더라고.

최: 저, 마무리, 조천용 선생님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 네,} 저기, 현대사진연구회는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요?]

조: 네. 저 아까, 우리 황규태 형 얘기한 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저, 인큐베이터적인 그런 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참 우리 여기 동료 분들 많지만 항상 늘 같이 다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게, 여기 해야 되는 걸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창환, 이창진 두 형제 얘길 했는데 그분이 그래도 그 건물 갖고 있어서 2층에다가 암실 하나 커다랗게 만들어서, 그걸 우리한테 내주고, 전 뭐 학교, 탄 일 아니면 거의 거기 가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중에 하나가 지금 작고한 김효열 씨가 먼저 여자 친구가 신세계백화점에 있었어요. {박: (웃음) 하하. 별게 다……} {황: (웃음) 아니, 근데 여담인데 관계없지 않을까? {박: 없어요. 하세요.} 글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퇴근할 땐 꼭 김효열 이도 그렇고 우리가 거기 항상 들리고 그러니까, 뭐 이래, 뭐 이런 한 보따리 싸들고 왔다고. {최: 예?} 먹을 거를. {황: 어,} {최: 아, 예,} 그래서 항상 저녁때마다 갖고 와서 우리 맛있게 먹고 그런 적 있었는데, 그리고 또 밤에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그 두 분한테는…….

(연구자의 판단으로 공개가 보류된 부분입니다.)

조: 참고[로] 두 분 창진이, 창환이 형제 그리고 김효열 씨 모두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예, 뭐, 제가 어떻게 두서없는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박: 아니요,} {주: 아, 감사합니다.} {조: 아, 좋은데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동 박수)